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_WCC_2022

젠더/섹슈얼리티 이슈에 대해 성찰하는 여정으로의 초대

2022년 2월 9-15일 열린 화상회의로 진행된 내용이
WCC중앙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문서는 'Rainbow Pilgrims of Faith' 회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 모든 내용이 2022년 2월 9-15일 열린 WCC 중앙위원회의 화상회의에서 '자료 문서'로서 공식 채택된 문서입니다. 한국예수교회연대는 이 문서를 우리 회원의 내부 자료로 삼고 함께 읽기 위해 자체 한글번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식적 출판물로 활용하는 일은 제한하고자 합니다.

*원문 링크 :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ublications/conversations-on-the-pilgrim-way>

*번역에 대해 제안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한국예수교회연대 이메일(2022kycs@naver.com)로 연락주세요.

[목차]

집행 요약 4

1. 서론 5

- 1.1 세계교회협의회 소개 5
- 1.2 문서의 성격과 목적 6
- 1.3 우리 시대의 상황 분별하기 8
- 1.4 이 문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12
- 1.5 연구 방법론 및 개요 16

2. 대화를 위한 핵심 영적 가치 21

- 2.1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가치 21
- 2.2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한 관계의 가치 23
- 2.3 그리스도의 몸 안팎의 가치와 존엄성 25

3. 인간의 성 문제에 대한 윤리적 분별력 26

- 3.1 윤리적 분별력을 위한 주요 출처 26

- 3.1.1 성경 27
- 3.1.2 전통 28
- 3.1.3 이성 31
- 3.1.4 경험 33
- 3.1.5 추가적인 자료 34
- 3.1.6 근거의 상호 연관성 37
- 3.2 교회 간 불일치의 인과적 요인 37

4. 역사의 이정표: 교회에서의 학습 여정으로서 인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고군분투 39

- 4.1 초대 교회 역사에서 섹슈얼리티의 양상 39
- 4.2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가족에 대한 종교개혁의 측면 42
- 4.3 유럽 식민지 시대 43
- 4.4 현대 시대 45

5.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공통된 신학적 원리 47

- 5.1 관계성: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됨 47
- 5.2 인격: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49
- 5.3 신체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선함을 긍정함 52
- 5.4 코이노니아: 완전한 친교를 향해 성장하는 포용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54
- 5.5 케노시스: 주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57

6.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폭력 61

- 6.1 언어와 담론 61
- 6.2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63
 - 6.2.1 여성 66
 - 6.2.2 어린이 68
 - 6.2.3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별 특성이 다른 사람 71
 - 6.2.4 장애인과 함께 하기 75
 - 6.2.5 이민자, 난민 및 인신매매 76
- 6.3 몇 가지 통찰 79

7. 교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대화하기 82

7.1 WCC 내 대화의 역사 82

7.2 WCC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사이의 대화 85

7.2.1 회원 교회들 87

7.2.2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대화와 가르침 94

7.2.3 기독교 세계 공동체들 97

7.2.4 국가 교회 협의회 107

7.2.5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 114

7.2.6 신학교 및 신학 기관 116

7.3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회의 대화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들 122

8. 안전한 대화의 공간 만들기 :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에 대한 믿음 125

8.1 안전한 대화의 공간 127

8.1.1 보세이 세미나 (2001-2003) 127

8.1.2 대화의 공동체 132

8.1.3 안전한 대화의 공간의 특징 133

8.1.4 안전한 대화의 공간 134

8.2 관용: 순례자의 길에서 다름과 함께 살아가기 137

8.3 세계교회협의회의 과제들 139

8.4 교회를 위한 도전 과제 140

8.4.1.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과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더 넓은 목회적
고려 140

8.4.2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에큐메니칼 책임 교육과 신학을 향한 성
장 141

8.4.3 새로운 교회됨의 방식을 향하여 143

집행 요약

이 문서는 2022년 2월 9일부터 15일까지 화상 회의로 개최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접수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는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함께의 여정 초대 - 성찰과 행동을 위한 자료'(GEN PRO 03.1)를 접수하고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론에서 이 자료는 토론을 심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회원 교회들을 위한 자료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원 교회들이 정보와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민감한 주제이며 일부 교회에서는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산 총회에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안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교회와 교제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안전한 공간에서 에큐메니칼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리적 딜레마를 함께 헤쳐 나가자는 이 문서의 초대를 환영합니다.

권고

5. 프로그램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a.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를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대화에 관심이 있는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을 위한 자료 문서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 b.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인정합니다.

합의에 의해 승인됨 :

테오도라 이사 박사(시리아 정교회 안디옥 및 동방 총대주교청), 잭 칼릴 박사(그리스 정교회 안디옥 및 동방 총대주교청), 프란트 타하니안 신부(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실리시아 성좌)가 이 문서의 수락에 반대했습니다. 이의 제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근거는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서론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대화, 비즈니스 세션 및 기타 발표에서 제기된 ‘인간의
섹슈얼리티문제가 WCC 회원 교회와 그 구성원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교회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WCC는 교회들이 도전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도덕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젠더와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 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공동의 의제로 다뤄져야 합니다.¹⁾*

위의 권고에 따라 WCC 총무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스텝 그룹과
레퍼런스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이 그룹의 구성원은 다양한 교회 전통과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회, 동방정교회, 루터교, 동방정교회, 감리교,
개혁신교회, 연합 및 일치 교회,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북미, 태평양의 여러 나라에서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1.1 세계교회협의회 소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352개 정교회,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개혁신교회, 연합 및 일치 교회, 메노나이트, 친구, 회중교회, 제자교회,
아프리카 선주민 교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부 오순절 교회 및 독립 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WCC는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기독교 단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들의 교제의 주된 목적과 비전은 세상속에서 신앙을 전하고,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 생활로 표현되는 하나의 신앙과 성찬의 교제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서로를 부르며,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²⁾*

1) "Report of the Programme Guidelines Committee," *10th Assembly of the WCC in Busan, Republic of Korea, 2013, Doc. No PGC 01, 5-6, par 28.*

2) *Constitution and Rul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mended by the 10th Assembly of the WCC in 1998, at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assembly/2013-busan/adopted-documents-statements/wcc-constitution-and-rules>.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의 일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WCC 첫 총회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예수 그리스도]을 우리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 질서, 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계급, 인종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셨고, *그럼으로 더 이상*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발견합니다.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우리는 그분께 새롭게 헌신하고,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³⁾

지난 70년 동안 이 협의회는 신학, 실천, 윤리의 분열적인 문제들을 다뤄왔고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1.2 문서의 성격과 목적

‘순례의 길에 있어서의 대화(*Conversations on the Pilgrim Way*)’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세계교회협의회 대화로, 교회 안팎의 관심 있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대화는 WCC 회원 교회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온 일련의 대화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대화가 아니라 약 50년 동안 회원 교회들이 진행해 온 다양한 회의, 협의, 연구 과정의 결과입니다.⁴⁾ 이미 뉴델리 총회에서는 결혼 전과 후의 성관계 문제, 특히 일부다처제, 피임약의 사용 가능성의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1968년 옹살라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동성애와 낙태 문제가 추가되면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1974년 서베를린에서 '1970년대 성차별'을 주제로 대규모 협의가 열렸고,⁵⁾ 나이로비(1975) WCC 총회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모색했으며, 밴쿠버(1983)와 캔버라(1991) 총회는 모두 다른 총회와 같은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동성애 문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라레 총회(1998) 이후 섹슈얼리티 문제에

3) "Messag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msterdam, 1948, in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W. A. Visser't Hooft (London: SCM, 1949), 9.

4) See chapter 7 for a brief account of this process; also, chapter 8, section 8.1.1.

5) *Sexism in the 1970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 Repor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onsultation, West Berlin 1974 (Geneva: WCC Publications, 1975).

대한 교회 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시에 있는 에큐메니칼 연구소에서 열린 일련의 세미나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제공했고,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도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맥락에서 교회가 함께 다뤄야 할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경험, 표현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회들의 최종 문서나 윤리적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의도나 목적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는 WCC 정책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목적은 솔직하고 헌신적이며 신학적으로 영감을 받은 대화를 촉진하고, 많은 교회들이 고백 전통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가족들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화에서 회원 교회들은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관점, 관심사, 질문을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통된 성명을 발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와 접근 방식을 포용하고 상호 존중과 교류의 정신으로 견해, 통찰력, 우려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 섹슈얼리티에 대한 현재의 대화 단계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WCC 총회에서 의무화되었고, 이후 2014년 6월 실행위원회에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에 대한 규약이 승인되면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같은 총회에서 회원 교회와 다른 교회, 신앙 공동체,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 초대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틀 안에 놓였습니다. 이 순례는 교회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신학적 성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고유한 인간 존엄성, 권리, 책임을 존중하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위한 다양한 근거에 대한 성찰을 제시한다.
2.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신학적 원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3.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우리 시대의 징후를 식별합니다.
4. WCC 펠로우십에서 경험한 인간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5.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를 위한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예시를 제공한다.

1.3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기

WCC 전략계획 2014-201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오늘날 사회,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특별한 도전은 사회, 경제, 정치, 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의 다양성입니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는 시급하고 적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논의에 각자의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⁶⁾

따라서 우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에서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함께 분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WCC 전략계획 2014-2017은 이를 위해 세상과 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회의 사회 윤리와 증언에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원천과 영적 차원, 즉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윤리적 분별력의 원천과 토대에 대한 성찰이, 6장에서는 시대의 징표에 대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교회와 사회는 글로벌 경제화의 영향, 거시적 및 미시적 불안정, 불평등, 불의의 영속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빠른 소통의 발전에 힘입어 섹슈얼리티가 상품화, 상업화되는 현상도 포함됩니다. 특히 성 소수자 등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분열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교회와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정관념, 상호 편견, 정치적 편견 등의 영향을 받아 진정으로 교회의 일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선의 목회적, 윤리적 해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이해관계를

6) See the WCC Strategic Plan, 2014-2017 (Document GEN 11), approved by Central Committee, Geneva, 2014.

위해 논의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유엔(UN)에서의 논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의제 2030의 일환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SDG 3(건강과 웰빙), SDG 4(양질의 교육), SDG 5(젠더평등)에서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⁷⁾ 이러한 목표는 신앙 공동체의 비판적 참여 없이는 온전히 이행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교회가 전해야 할 하나님 통치의 가치가 SDG 의제의 목표에 단순히 흡수되거나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구원과 화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지평은 SDG 의제와 같은 정치적 문서의 내용보다 더 넓고 깊어야 합니다.

많은 사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교회가 도덕적 지침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교회는 만연한 유행이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들거나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교회의 성직자와 관리들이 미성년자 성폭행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종 교회는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혐박과 폭력을 당했을 때 침묵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가해자의 공적 법적 기소에 협조하는 대신 오히려 공모해 왔습니다. 현재 일부 교회에서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공개적인 폭로와 항의가 있는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교회의 도덕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교회 내에서 공적 담론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주제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포럼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겪은 경험과 좌절, 통찰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점점 더 많은 교회와 사회가 성적으로 착취당했거나,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직장, 서비스 제공 기관, 교도소, 예배당, 난민 수용소 등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전쟁 중에 발생하는 강간, 사이버 성폭력,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 아동에 대한 착취, 학대, 폭력의 피해자/생존자들로부터도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소외를 조장하는 개인과 사회의 태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타인에게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에 걸친 침묵 끝에 이러한 문제와 상황은 점점 더 가시화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일부 교회에서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분별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⁸⁾ 특히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같이 민감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잔인하면서도,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형태의 폭력이 확산되는 것에는 모든 교회가 반대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갖추고, 다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고를 묵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⁹⁾ 이러한 도전은 신학적 대화를 심화하고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WCC는 1984년부터 HIV와 에이즈 문제를 다루고 교회와 함께 이 전염병에 맞서 온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¹⁰⁾ 인류는 HIV에 대처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anti-retroviral treatment)의 가용성이 높아지면서 이 치료제를 이용할 수 있는 HIV 감염인들은 비교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IV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의 관계와 삶의 경험과 관련된 어려움은

8) To aid such a process of discernment,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 has produced a study document, Moral Discernment in the Churches, Faith and Order Paper No. 215 (Geneva:WCCPublications,2013),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ommissions/faith-and-order/i-unity-the-church-and-its-mission/moral-discernment-in-the-churches-a-study-document>.

9) See Pope Francis's comment in Ciara Nugent's article on the February 2019 global summit on sexual abuse cases, "Why the Pope's Summit on Abuse Disappointed Some Survivors, Time, 28 February 2019, <https://time.com/5540867/pope-francis-sex-abuse-summit-2/>.

10) HIV refers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IDS is acquired immunity deficiency syndrome, a disease in which there is a severe loss of the body's cellular immunity.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HIV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성역할, 남성성, 폭력, 특히 친밀한 관계 내 학대를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과 깊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사회가 취약성을 해결하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마주하고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을 가진 사람들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표현을 다루지 못하면 이들에게 HIV 관련 치료, 예방 조치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또는 성적 표현을 이유로 낙인과 차별을 받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일부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하기 위해¹¹⁾ 정의, 평화, 바른 관계, 언약의 사랑에 기초하여 사회에 대한 증언을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¹²⁾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인간성에 대한 학습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참여하고 억압받고 희생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숙고하고, 성경의 증언, 신학과 전통의 통찰, 전례의 표현, 화해와 은총의 경험과 씨름함으로써, 배움의 여정 속에서 의미있는 대화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학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섹슈얼리티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고, 신학적 전제도 다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 욕망(성적 욕구를 포함한)을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는 교회나, 기독교적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운동은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존재론적이지 않다고 믿으며, 섹슈얼리티는 인간됨의 핵심이 아니며 성적 행위는 피해야 할 유혹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교회와 전통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죄의 범죄와 연관시키는 원죄로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이지만, 항상 죄로 인한 소외와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성육신적 창조 신학을 따릅니다.

11) Redress, that is, seeking to put aright a situation of imbalance in society; see, for example, Seamus Heaney, *The Redress of Poetry: Oxford Lectures* (London: Faber and Faber, 1995), esp. 1-16.

12) These are the core concerns of the Torah, according to Jonathan Sacks, former Chief Rabbi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ee his book *To Heal a Fractured World* (London: Continuum, 2005).

이러한 윤리적 입장과 지평과 관련하여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동질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별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성 윤리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많은 교회는 다양한 개인적 이해를 수용하는 동시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교회는 변화하는 이상과 삶의 패턴으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포르노 산업 등 섹슈얼리티의 상업화는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기독교 교회의 공통적이고 분명한 입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와 교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WCC가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읽고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복음에 충실하고자 할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지금, WCC에 포용적인 대화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4 이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이 문서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대화, 순례의 길의 신학, 대화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는 성적 감정이나 성적인 관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섹슈얼리티에는 여성, 남성 또는 트랜스젠더로서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의 복잡성, 타인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는 것, 사랑에 빠지는 것,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친밀감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어지는지는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섹슈얼리티는 관계성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모든 주제의 잠재적 취약성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믿으며(창 1장),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성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¹³⁾ 성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 인정되며 인간의 정체성과 완전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선물로 간주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서로의 합의 안에 충실하며,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룸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충만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¹⁴⁾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최근의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측면이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섹슈얼리티는 일생 동안 인간이 되는 핵심적인 측면이며 성별, 성 정체성 및 역할, 성적 지향, 에로티시즘, 쾌락, 친밀감, 출산과 관련된 것을 포괄합니다. 섹슈얼리티는 생각, 환상, 욕망, 신념, 태도, 가치, 행동, 관행, 역할 및 관계에서 경험되고 표현됩니다. 섹슈얼리티에는 이러한 모든 차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차원이 항상 경험되거나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윤리적, 법적, 역사적, 종교적, 영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¹⁵⁾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온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과 내용은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개발되었지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WHO의 정의에 기반한 맥락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13) These are the core concerns of the Torah, according to Jonathan Sacks, former Chief Rabbi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ee his book *To Heal a Fractured World* (London: Continuum, 2005).

14) Manoj Kurian, "Critical Analysis of Churches' Stand on Human Sexuality and a Way Forward," in *A Theological Reader on Human Sexuality and Gender Diversities: Envisioning Inclusivities*, ed. Roger Gaikward and Thomas Ninan (Utrecht: CSA Kerk in Actie, NCCI, 2017), 152-68.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Defining Sexual Health: Report of a Technical Consultation on Sexual Health, 28-31 January 2002"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cited in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s Compilation of Articles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Sexuality*, September 2017, 3n2.

문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현재 교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순례의 길 위에서의 대화

순례의 길 위에서의 대화는 인간 삶의 핵심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함께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대화라는 단어에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화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거나, 자신의 존재를 갖는 행위"이며, "공동체, 사회, 친밀감의 정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대화는 "섹슈얼리티"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일반적으로 "생각과 말의 교환, 친숙한 담론 또는 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¹⁶⁾ 대화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대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와 생명의 신성한 선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치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 과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으며, 유대감과 삶에 대한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신학

17세기 스위스 개혁파 신학자 요하네스 볼레비우스는 이러한 유대감을 탐구하며 신학을 '신과의 대화', 즉 하나님의 대화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내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신격 안에서 대화하는 것, 즉 신적 대화가 모든 대화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대화에서 창조세계와 창조자의 대화, 그리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지금도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볼레비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회의 지속적인 대화를 "거울로 어둡게 보는"(고전 13:12) 공동체로 특징지었습니다.¹⁷⁾ 그렇게 함으로써 볼레비우스는 교회의 초기 명칭 중

16) *The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3d ed.,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1986), 418.

17) Johannes Wollebius, "Compendium Theologiae Christianae," in *Reformed Dogmatics: Seventeenth-Century Reformed Theology through the Writings of Wollebius, Voetius, and Turretin*, ed. and trans. John Beardslee III, (Grand

하나인 '길 위의 사람들the people of the Way'을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¹⁸⁾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례자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고, '지금'과 '아직 오지 않은 곳' 사이를 희망과 기대 속에 여행하는 백성입니다.¹⁹⁾ 이러한 공동체와 대화는 '삼위일체의 대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신의 한계를 분별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나그네 공동체는 모든 이해가 잠정적인 것임을 인정합니다. 예루살렘의 키릴(4세기)은 그의 교리 강론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최선의 지식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²⁰⁾ 이러한 이유로 부정(apophatic)신학의 전통과 나그네들의 전통은 신학적 지식의 한계와 성육신의 사건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최근 신앙과 직제 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또는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고 나타난 "하나님나라"에 대한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회복의 역동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신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자적이고 자비로운 사역을 통해 생명을 주는 사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삼위일체 교회는 상처받고 분열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여행하면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사회의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합니다.²¹⁾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29. See also Rosemary Radford Reuther, *Sexism and God Talk: Towards a Feminist Theology* (London: SCM, 1983).

18) The Didache.

19) Wollebius, "Compendium."

20) "Cyril of Jerusalem," quoted in Misha Cherniak, Olga Gerassimenko, and Michael Brinkschroder, eds., *For I Am Wonderfully Made* (Esuberanza: European Forum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hristian Groups, 2016), 139.

21)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Faith and Order Paper No. 214 (Geneva: WCC Publications, 2013), 5, para. 1.

안전한 대화의 공간

안전한 대화 공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차이, 은사와 기쁨, 결핍과 강점, 이 생애 함께 머무는 동료로서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서로의 취약성과 결점을 인정하면서 겸손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성과 결점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금 더 안전한 공간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안전한 대화의 공간은 성경 공부, 개인적인 이야기, 전통과 현대적 이해에서 얻은 통찰을 통해 공동체로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가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 연구 방법론 및 개요

이 문서의 기초를 형성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이해하는 렌즈를 제공하는 네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WCC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헌법은 WCC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WCC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기초는 WCC 회원들의 기준, 일관성의 원천 또는 근거 역할을 합니다."²²⁾ 따라서 WCC 기초의 다음 요소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기준이 되는 틀을 제공한다:

- 삼위일체 중심성

²²⁾ *The basis of the WCC,*

<https://www.oikoumene.org/en/about-us/self-understanding-vision/basis>.

-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만들어진 상호 의존성
- 성경의 빛에 근거한 일과 삶, 그리고
- WCC 회원 교회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

첫째, 삼위일체는 인간의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역동적인 실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 전체와 연결된 살아 있는 실재입니다.²³⁾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은 삼위일체의 대인적 친교, 대화,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초는 공동체, 정의, 다양성, 다원성,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례를 받고 그 안에서 서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²⁴⁾

셋째, 이 문서의 작업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의 삶과 작업에 스며든 성서 연구에 비추어 수행되었으며, 현대인의 삶에 대한 통찰과 도전을 함께 제공합니다.

넷째, 이 대화는 상호 책임과 존중의 정신으로 WCC 회원 교회들이 경험과 성찰을 교환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은혜의 공간, 즉 교회들의 교제라는 의미의 표현을 상상합니다.

다양한 대화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논의의 바탕을 이루었습니다. 개인, 공동체, 경전의 한 페이지, 전통의 통찰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당면한 맥락과 상황을 뛰어넘어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관계를 축하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학대받았거나 고정관념, 차별, 두려움, 공포, 희생의 상황에 처해 있는 주변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HIV 감염인,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성소수자, 소수인종, 소수종교, 소수민족, 1인가구, 유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상황과 이야기는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초대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개별적이고 독특하지만 당면한 상황을

23) Dimitri Dudko, *Our Hope*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7), 36.

24) See Alan Falconer and Martin Robra, "When Christians Meet: Signposts for an Ecumenical Pilgrimage," *Ecumenical Review* 56, no. 4 (2004): 384-89.

넘어 질문, 문제, 관점을 열어주고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행동에 대해 깨닫게 해줍니다.

다메섹의 성 요한은 그의 저술 중 하나에서 "온 땅은 하나님의 얼굴이 살아 있는 이콘 icon이다."²⁵⁾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반영하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헌신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 문서는 WCC 내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공유하고 회원 교회, 기독교 세계교회협의회, 국가 교회 협의회,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의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성찰은 주법(state law)의 변화와 같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촉발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교회 권징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회원과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관점이 기독교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과 경험으로 여기는 것과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에 관한 보건 과학과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유엔과 그 기관들의 여정에서 나온 지식, 특히 1992년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교회가 자신의 태도와 이해를 검토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통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회원 교회들은 신학적, 윤리적, 목회적 고민과 결정의 결과로서 각자의 성찰을 에큐메니칼 대화와 WCC의 "에큐메니칼 공간"²⁶⁾으로 가져옵니다. 이 포럼에서 교회들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들의 여정에 대한 설명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일부 교회는 성례로서의 결혼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출산과 기쁨을 위해 유일하게 관계가 가능한 공간으로 여깁니다.²⁷⁾ 독신주의를 긍정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현대

25) St John of Damascus, *Treatise 1: On the Divine Images*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2003)

26) See Alan Falconer, "Ecumenical Space," *Ecumenical Review: Essays in Honour of Konrad Raiser* 56, no. 1 (2004): 85-92.

27) For example, Kelvin F. Mutter states that "Chrysostom's views stand in

사회에서 독신주의에 대한 반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안수하고 포용하는 것에 대한 성찰을 나눕니다.²⁸⁾ 다른 교회들은 동성애 관계를 성경의 증언과 전통의 증거와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HIV와 에이즈, 인간관계의 건강과 온전함에 관한 교육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행의 과정에서 교회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연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후 재혼에 대한 새로운 목회적 성찰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렸지만,²⁹⁾ 다른 교회는 이러한 문제와 계속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양극화되고 깊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상호 책임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스피릿의 기준은 WCC 전 총무였던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목사가 그의 저서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진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상호 책임감에는 신뢰성, 충실성, 신뢰성, 연대성, 개방성,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수용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³⁰⁾

contrast to other voices his congregation would have heard. Where these voices advocated public eroticism and viewed the home merely as a place for breeding children, Chrysostom declared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the only legitimate place to practice one's sexuality was within marriage. In seeking to remove eroticism from the marketplace, and by encouraging marriage partners to share their bodies with each other, Chrysostom upheld the value of marital concupiscence" ("John Chrysostom's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 *Baptist Review of Theology* 6, no. 2 [1996]: 22-32).

28) A common way of denoting these different identities is LGBT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and Questioning.

29) The Pan-Orthodox Council in 2016 agreed upon a document on the basis of its analysis of scripture and tradition, in which it declared that "The Church does not deem it possible for her members to contract same-sex unions or enter into any other form of cohabitation except marriage" ("The Sacrament of Marriage and Its Impediments," Section 1.10, 28 January 2016, <http://www.pravoslavie.ru/90247.html>).

30) Olav Fykse Tveit, *The Truth We Owe Each Other: Mutual Accountability in the Ecumenical Movement* (Geneva: WCC Publications, 2016), 333. This work is a

이 문서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토론을 위한 도구와 행동을 위한 격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회원 교회, 다른 교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에큐메니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이 문제의 현황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대화는 이 순례의 정신으로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통된 유대감을 고려할 때, 이 문서는 모든 회원 교회가 여전히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상호 존중, 책임감, 인식의 공간에서 서로의 통찰력, 결정, 질문을 공유하고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wide- ranging analysis of Faith and Order documents and other WCC studies, in which Fykse Tveit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idea and ethos of mutual accountabil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WCC.

2. 대화를 위한 핵심 영적 가치

이전 장에서 언급한 틀은 이 문서에 기여한 사람들의 삶과 작업 전반에 걸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위일체 중심성,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의 상호의존성, 성경의 빛에 근거한 우리의 사역과 삶, 그리고 WCC 회원 교회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작업에 영감과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성서적, 신학적 탐구와 교회 전통의 공유, 그리고 레퍼런스 그룹 회원들의 이야기와 경험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려는 우리의 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는 세 가지 핵심 영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질, 그리스도의 몸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성입니다.

2.1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가치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순례의 의도적인 사용은 "이 여정이 깊은 영적 의미와 심오한 신학적 의미와 함의를 지닌 여정임을 전달합니다.³¹⁾ 이 대화는 정의와 평화의 기초인 사랑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변화의 여정에 모든 곳에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2013년 부산 총회에서 시작된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2014년 WCC 중앙위원회 문서 '정의와 평화의 순례로의 초대'를 채택함으로써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문서는 회원 교회와 모든 이들이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순례에 동참하고, 순례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동행과 동행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문서는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관계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학습, 영감, 발견,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차원을 제안합니다.³²⁾

31) *An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revised), WCC Central Committee, 2-8 July 2014, Geneva, Switzerland, 2,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entral-committee/geneva-2014/an-invitation-to-the-pilgrimage-of-justice-and-peace>.

32)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3

1. 선물을 축하하기(*via positiva* 긍정의 길):

우리는 빈손으로 여행하지 않으며, 혼자 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의 축복'과 함께, 즉 교제로서 우리는 더 넓은 삶의 그물망에서 독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선물, 창조의 아름다움, 화해된 다양성의 일치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 평화의 운동에 동참하는 이 은혜에 힘을 얻습니다. -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서로 수용합니다.³³⁾

이러한 대화를 통해 순례단은 회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선물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탐구하고 축하하며 순례자, 교회, 세상을 위해 건강과 온전함을 키우는 방식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 선물을 포용하도록 초대합니다.

2. 상처 돌아보기(*via negativa* 부정의 길):

이 순례는 추악한 폭력과 불의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배제, 차별의 한가운데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찾고자 합니다. 깨어진 피조물과 서로를 향한 죄악된 행동에 대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경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 자체에 대해 새롭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평화의 운동으로 우리를 권력, 소유물, 자아, 폭력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시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기도로 귀를 기울입니다.³⁴⁾

모든 피조물은 정의와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걷고 행동하는 것은 불의, 무지, 낙인, 고통,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여 인간 가족이 깨어진 방식에 대해 배우고 대화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은혜의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고 성령으로 거룩해진 인간의 존엄성과 운명을 표현³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불의를 변화시키다(*via transformativa* 변혁의 길):

순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구체적인 변화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와 자연에 대한 진정한 연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소수자 상황에 처하더라도 불의와 폭력 등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포함될

33)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3.

34)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3.

35) *Come and See: A Theological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Faith and Order Paper No. 224 (Geneva: WCC Publications, 2017), 6, para. 17.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생태 정의는 물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행동의 신뢰성은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질, 즉 정의와 평화의 교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기도 안에서 행동합니다.³⁶⁾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순례자들이 불의, 무지, 낙인, 고통, 폭력,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온전함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변혁의 여정입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는 우리 구원의 신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세상에서 일하시는 변화의 방식에 대한 개방성을 포용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확증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로의 초대’에서 다시 발췌한 다음 기도문은 이 여정의 정신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공동체, 이동 중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향해 함께 여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감을 구하며, 우리의 순례가 정의를 위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³⁷⁾

2.2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관계의 가치

이러한 관계와 관계성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는 살아 있고 역동적인 실체로서 존재했으며,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솟아나고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보셨습니다. 이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긍정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선행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는 각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단합을 위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존재합니다.

삼위일체 안의 관계는 다른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의 관계 모델을 형성합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관계와 모든 대화의 원천입니다.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은 완전히 상호 의존적입니다. 각각 고유한 인격을 지닌 세

36)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3.

37)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5

위격이시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남아 계십니다.³⁸⁾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눈에는 신분,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취향 또는 능력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는 범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화에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에 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 피조물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인간은 이 선물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이 세상은 거룩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인간은 자신의 몸과 사랑과 섹슈얼리티와 같은 인간의 욕구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굴욕과 고통을 당하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은혜와 새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새 생명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몸은 거룩해집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신성한 전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배분되고 나누어지며; 배분되나 나누어지지 않고, 먹히나 먹히지 않고, 참여하는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³⁹⁾ 전례에서

38) See, for example Hilary of Poitiers, *De Trinitate*; also John of Damascus, *An Exact Exposition of the Orthodox Faith*, Book 1, both in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2nd Series, vol. 9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63); and the writings of the Cappadocian Fathers, St Augustine and St Ambrose, among others; See also contemporary expositions, such as Karl Rahner, *The Trinity* (New York: Herder & Herder, 1970, repr., 1997); Boris Bobrinskoy, *The Mystery of the Trinity*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9); John D. Zizioulas, *Being as Communion* (London: DLT, 1997); Jü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New York: Harper & Row, 1981); and the British Council of Churches, *The Forgotten Trinity: The BCC Study Commission on Trinitarian Doctrine Today*, 2d ed. (London, CTBI, 2010). See also Andrei Rublev's icon of the hospitality of Abraham and Sarah, in Leonid Ouspensky and Vladimir Lossky, *The Meaning of Icons*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2), 200-205; Leonardo Boff,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0);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39) These are the words of the priest at the dividing of the holy bread, as the communion hymn is chanted.

성령께 드리는 기도인 *에피클레시스epiclesis*는 하나님 백성의 성화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2.3 그리스도의 몸 안팎의 가치와 존엄성

교회는 삼위일체 사랑을 삶 속에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의 사명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⁴⁰⁾ 그리스도의 몸은 다양하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몸이라는 이미지(고전 12장)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증합니다.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은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돌볼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고전 12:25-26).

교회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문화, 민족, 성별, 섹슈얼리티, 신앙 등 모든 다양성을 지닌 모든 인류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순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화의 특징입니다.

40) Jooseop Keum, ed., *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Geneva: WCC Publications, 2012), para. 19.

3.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윤리적 분별력: 배움의 원천과 여정

3.1 윤리적 분별을 위한 주요 자료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특권적 기구인 WCC는 특히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대화과 도덕적 분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종종 확인한다.⁴¹⁾ 부산 WCC 총회는 "논쟁적인 이슈들은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공동 의제로서, 관용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 기준은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⁴²⁾ 자리를 차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는 대부분 신앙과 질서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주로 교회론과 관련된 신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회 일치와 분열의 윤리적 차원, 특히 교회론과 윤리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만남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부산 총회에 제출된 신앙과 직제 문서 '교회에서의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이 문서는 다양한 신앙고백을 가진 회원 교회들 간의 대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토론을 여는데 도움을 줍니다.⁴³⁾

도덕적 분별 연구 과정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공동 실무 그룹이 에큐메니즘과 도덕적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수행한 초기 작업에 따라 교회가 동일한 출처를 바탕으로 윤리적, 도덕적 결정에 도달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경로'와 도덕적 분별을 위한 다양한 권위 있는 수단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신앙 고백을 가진 순례자들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차원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성경적 관점을 공유하며, 인간 삶의 모든 현실과 복잡한 측면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때 출처 사용에 대한 명확성이

41) "Report of the Programme Guidelines Committee," *10th Assembly of the WCC, Busan, Republic of Korea, 2013*, Doc. No PGC 01, 4, para. 28.

42) "Report of the Programme Guidelines Committee," 5, para.

43) *Moral Discernment in the Churches: A Study Document*.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moral-discernment-in-the-churches>

필요합니다.

유대-기독교 도덕적 분별의 원천과 자원인 성경, 전통, 이성 (과학적 연구와 국제법 및 기준 포함), 인간의 경험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도전에 대해 성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3.1.1 성경

성경은 모든 기독교 전통에 공통된 것으로, 순례의 권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분별력 연구 문서에서 인정하고 확인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앙 전통이 성경의 이해와 해석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출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원래의 저자와 독자에게 텍스트가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내고(주석), 오늘날의 다양한 맥락에서 텍스트의 지속적인 적용을 식별하는 것(해석학)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층적이고 교차적인 분석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함의와 관련하여 자주 반영되는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솔로몬의 노래의 이미지, 세례, 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열쇠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에 일관성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신학에서 성서 본문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다루는 맥락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아프리카 신학 작업에서 최근에는 강조된 성서 본문을 언급합니다. 이 본문은 특이한 본문이지만, 동시에 성서 본문을 다루는 새로운 상황 해석학에 대한 새로운 참여의 예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9:1-30에 기록된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인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남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여인도 남편과 함께 돌려보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이 하룻밤을 묵게 해주고, 노인의 집에 있는 동안

마을의 남자들이 찾아와 첩과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합니다. 첩은 남성들에게 주어지고 밤새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⁴⁴⁾, 이 이야기는 이 여성이 경험한 성폭력과 현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교육과 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인종 차별, 빈곤, 정신 질환 등 다른 소외의 측면을 동시에 경험하는 침묵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행동하고 연대하도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⁴⁵⁾ 이 경우 성서는 이름 없는 잔학 행위를 명명하고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이 되며 성폭력과 다른 존재하고 교차하는 형태의 소외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영감을 줍니다.⁴⁶⁾ 물론 이러한 성서 읽기 접근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재현됩니다. 예를 들어, 에르네스토 카데날은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참여형 성경 공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⁴⁷⁾

3.1.2 전통

교회의 전례와 교회의 교부들과 교모들의 경험과 지혜에 담긴 교회의 전통 또는 성스러운 전통은 서로 연결된 두 번째 자원입니다. 이는 현대의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영감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해결하고 성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 및 불의에 맞서기 위해 전통과 성경, 이성, 경험을 결합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교회는 성서와 전통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성령께서 이 둘을 통해 역사하시며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성서와 성스러운 전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후자는

44) Several other biblical passages can reveal surprising insights into both the realities of human sin in the area of human sexuality, as well as the promises God has given for allowing our bodies to be temples of the Holy Spirit and instruments of God's love.

45) See Robina Winbush, "Not A Mumbling Word," in *Righting Her-Story: Caribbean Women Encounter the Bible Story*, ed. Patricia Sheerattan-Bisnauth (Geneva: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2011), 100-113.

46) See also Hans Ruedi Weber, *The Book That Reads Me* (Geneva: WCC Publications, 1995).

47) Ernesto Cardenal, *The Gospel of Solentiname* (Maryknoll, N.Y.: Orbis Books, 1982). See also the Bible study materials by Hans Ruedi Weber when he was director of the WCC Biblical Studies desk.

"성경의 진정한 해석이며 이런 의미에서 ... 성경과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은 실제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⁴⁸⁾ 신앙과 직제 문서 전통과 전통: 교회의 권위의 원천 (2004)은 전통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 대대로 전해지는 복음 그 자체, 교회의 삶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⁴⁹⁾ 전통은 (소문자) 전통, 즉 공동체의 신앙과 관습이 전승되는 과정과 보다 좁은 의미의 교파나 교백을 포함하는 (복수의)전통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⁵⁰⁾

레랭의 성 빈첸트는 전통을 "모든 곳에서,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어온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전통에 대한 가톨릭의 이해는 다양한 '사적' 의견과 교회의 '공적' 정신을 대조합니다. 따라서 전통은 교회의 경전적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전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지만 경전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신앙의 규칙"은 '성경의 의미에 대한 유일한 열쇠'였습니다.⁵¹⁾ 20세기에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전통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생명'이라고 주장했고,⁵²⁾ 요한 메이엔도르프 신부는 전통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과 만나서 그 시대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올바르게 응답한 올바른 선택의 이야기'⁵³⁾라고 썼습니다.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정경과 교부들의 증언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고대 교회의 교부들과 교사들 대다수는 성별 차이(기본적으로는 남성), 욕망과 정욕의 죄성, 결혼의 신성함, 수도원의 이상, 동정과 성적 포기의 미덕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유연성, 동성애 관행, 방탕과 난잡함, 성적 문란, 심지어 과도한 노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48) Georges Florovsky, *Bible, Church, Tradition* (Belmont, Mass: Nordland Publishing Co., 1972), 75.

49) For a discussion of this, see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at Montreal, "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 para.39 i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The Report from Montreal 1963*, ed. Patrick Rodger and L. Vischer (London: SCM, 1964)

50)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at Montreal, "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 para.39 in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The Report from Montreal 1963*, ed. Patrick Rodger and L. Vischer (London: SCM, 1964), 50.

51) Florovsky, *Bible, Church, Tradition*, 70.

52) Vladimir Lossky, *The Mystical Theology of the Eastern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6), 188.

53) John Meyendorff, *Catholicity and the Church* (Crestwood, N.Y.: St Vladimir's. 1983), 88.

그러나 성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성으로, 심지어 수도사로 변장한 여성(테클라와 유지니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열망하는 남성들의 자기 거세, 젠더 구별의 기원(창세기 1장과 2장)과 종말(종말론)에 관한 논쟁에서 일부 다원주의가 있었습니다.

윤리적 분별을 위한 규범으로서 전통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교회에서는 전통의 누적된 증거가 창조적으로 전유되어 현대의 딜레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질서를 통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는 자연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 규범의 전통은 그 자체로 지혜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하는 전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전통은 불변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전통을 고수한다고 해서 경직되거나 맹목적인 전통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은 죽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전통주의는 산 자의 죽은 신앙입니다.⁵⁴⁾ 안드레 루쓰가 강조한 것처럼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신앙의 예물을 전승하는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⁵⁵⁾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너희는 땅과 하늘의 모양을 해석할 줄 알면서 왜 현재의 시간을 해석할 줄 모르느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눅 12:56).

이는 에큐메니칼 교제 안에 교부들의 전통(또는 교회 전통으로 해석되는 자연법)을 일종의 절대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기독교 윤리를 보다 역사적이고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현대적 가치(시대정신)에 압도되거나 동화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며, 모든 교회가 민감하게 들어야 할 정당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흐름에 맞서서 대안적인 예언자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절대 윤리'를 강조하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현대인에게 의미 있고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해야 할 필요성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목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의 본질과 변하지 않는 핵심을 펼치기 위한

54) See Jaroslav Pelikan, *The Melody of Theology: A Philosophical Dictiona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252.

55) Andrew Louth, "Being Human," *The Wheel* 13/14 (Spring/Summer 2018), 13.

새로운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불멸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절대성'이 항상 구체적인 역사적, 인간적 현실 속에서 매개되고 전달되며 몰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육신의 본질적 특성에 속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윤리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반영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에 동의하는 한, "절대적" 기독교 윤리와 "상황적" 기독교 윤리 사이의 갈등은 인위적인 구조일 수 있으며, 세계 기독교 내 기독교 윤리 해석학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3.1.3 이성

모든 교회는 경전과 전통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신학적 또는 교회적 원천 외에도 도덕적 분별력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다른 원천에 호소합니다.⁵⁶⁾ 모든 교회는 인간의 추론과 비판적 사고, 양심과 경험, 자연과학, 의학, 사회과학, 과학에 반영된 인류의 공유된 지혜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다른 권위의 원천과 비교하여 이성의 사용에 대한 관련성과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성의 관계의 역사는 복잡하지만,⁵⁷⁾ 현대 교회의 가르침은 신앙과 이성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전통은 비판적 추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우리가 그것을 논증하자." [사 1:18]).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논쟁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행 18:4; 또한 행 18:19)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롬 12:1)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도 비판적 추론을 적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살전 5:21). 따라서 성경은 추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신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다른 과학의 통찰을 경청할 때 비판적 분별력을 적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명예롭고 무엇이든지 정의롭고 무엇이든지 순수하고 무엇이든지 기쁜 일이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탁월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 4:8).

56) Moral Discernment, p 23-25.

57) As in, for example, the interac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Enlightenment.

모든 교회는 비판적 추론을 적용하고 과학을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도덕적 도전을 제시하고 심화된 신학적, 도덕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학의 발견은 과학에서 알려진 것에 비추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적 분별 과정에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은 지구와 인간 사이의 엄청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전에 설정했던 자연 세계의 광범위한 매개 변수는 그 세부 사항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식물 세계의 다양성은 자연 세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구성합니다.⁵⁸⁾ 인간을 고려할 때 생물학, 의학,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는 우리도 다양성과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성별 위화감(개인의 신체적 성별 특성과 경험한 성별 사이의 불일치)은 생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⁵⁹⁾ 이는 자궁에서 경험한 호르몬 차이, 과학자들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다른 근본적인 변이의 결과 또는 기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제공하는 지식은 교회가 간성 및 트랜스젠더 현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배제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이끌어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사람들과 그 친척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목회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동행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적 열등감,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에 도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공식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동성애를 분류 해제하면서 성

58) See, for example, *Integrative & Comparative Biology* 53, no. 4 (October 2013), the issue on "Phenotypic Plasticity and the Evolution of Gender."

59) A. Saraswat, J. D. Weinand, and J. D. Safer, "Evidence Supporting the Biologic Nature of Gender Identity," *Endocrine Practice* 21, no. 2 (February 2015): 199-204; Sarah Melanie Burke, *Coming of Age: Gender Identity, Sex Hormones and the Developing Brain* (PhD diss., Vrije University Amsterdam, 2014).

소수자를 신체적, 의료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최신 버전의 분류 체계인 국제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 통계 분류(ICD 11)를 발표했습니다.⁶⁰⁾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적 표현에 관한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종교 단체와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폭력이 인간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섹슈얼리티의 온전성을 향한 성숙에 동행하기 위해 철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3.1.4 경험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기도, 명상, 묵상은 도덕적 분별의 과정을 심화시키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체험적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교회 관행과 함께 특정 도덕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도 도덕적 분별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에게 경험은 신학적 성찰의 구성 요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뿌리입니다.⁶¹⁾ 이러한 경험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과 도덕적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유된 경험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을 긍정하는 현실을 드러낼 수 있으며, 잘 해석하면 우리의 도덕적 분별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신학적 질문과 우려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삶의 경험을 광범위하게 탐구하고 급진적인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취약성과 소외의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침묵을 깨뜨린 해방신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 일부는 스토리텔링과 종교, 인간의 섹슈얼리티, 폭력에 관한 허구적 서사를 포함한 내러티브를 통해

60)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 n.d., <http://www.who.int/classifications/icd/en/>. For the ongoing discussion, see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behavioural science archive,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695779/>.

61) See, for example, the work of Latin American liberation theologians.

공유됩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더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대화, 공감, 사랑, 상호 행동의 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도덕적 분별력을 자극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도덕적 분별력은 다음과 같이 확언합니다:

일부 기독교인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는 자신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특히 우리와 매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별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항상 (살아있는 문서처럼) 해석되어야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⁶²⁾

어떤 경우에는 종교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화가 섹슈얼리티 담론을 사실상 금기시하게 만든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비인간화와 차별을 겪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편견 없이 경청하며, 성급한 도덕적 해결책을 피하는 것이 정의와 평화의 교제를 향한 순례의 길과 치유 과정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3.1.5 추가적인 자료

비서구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상황신학적 성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학적 성찰과 윤리적 분별력이 비서구 문화의 토착 지혜 전통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다섯 번째 범주의 통찰에 의해 풍부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종종 이러한 문화에 기독교가 도착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또는 선주민의 자원으로 신학을 하다 보니, 여전히 살아 있는 문화와 지혜 전통 중 일부는 비서구권의 문화가 존엄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⁶³⁾

따라서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속담, 신화, 속담, 전통, 금기, 관습은 도덕적 분별력에 있어 뚜렷한 원천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신화, 관습, 전통, 신념은 도덕적 분별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문제는 비-아프리카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속담과 속담에는 전통적인 아프리카에서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이 존재했음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 공동체에서

62) *Moral Discernment*, 30-31, para. 45.

63) *Moral Discernment*, 30-31, para. 45.

도덕성은 존재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규범은 대개 동일합니다. 오그부 칼루는 아프리카의 도덕성에 대해 말하면서 아프리카 전통이 "도덕 규범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⁶⁴⁾고 주장합니다.

로렌티 마게사도 아프리카의 "도덕성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⁶⁵⁾ 실제로 라틴과 북미, 호주, 뉴질랜드, 삼미,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선주민 민족과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로의 지혜는 도덕적 분별력의 또 다른 원천입니다.⁶⁶⁾ 장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전통에 대한 통찰과 현대 문제에 대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 제공하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뱌바스가 말한 우무쿨루 아푸사 아카브웨, 타푸사 세베 *umukulu apusa akabwe, tapusa cebe*("장로의 손은 돌로 목표물을 빗맞힐 수 있어도 도덕적 조언은 그렇지 않다")는 아프리카의 도덕적 분별력에서 장로가 하는 역할을 다시 한 번 말해줍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문화적 가르침, 신념 및 기타 문서화된 텍스트도 권위 있는 출처입니다. 성경과 초대 교회 저술가들이 도덕 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널리 퍼진 비기독교 철학을 활용했던 것처럼, 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도덕적 분별을 위해 비기독교 텍스트를 자유롭게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성육신한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성육신한 말씀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육신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와 같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복음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육신해야 한다면, 인간의 문화적 전통은 도덕적 분별력에 있어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 수 없는 신"(행 17:23)에 대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 신화를 차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 특정 공동체의 가치,

64) Ogbu Kalu, "Religion and Social Control in Igboland," in *Religious Plurality in Africa: Essays in Honour of John Mbiti*, ed. Olupona K Jacob and Sulayman S. Nyang (Berlin: De Gruyter, 1993), 115.

65) Laurenti Magesa, *African Religion: The Moral Traditions of Abundant Lif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7), 35.

66) See 1 Timothy 5:17-19; 1 Peter 5:2; Ezekiel 20:3; Exodus 3:16.

규범, 신념은 특정 신앙 공동체 내에서 특정 이슈가 어떻게 수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알려주고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경우, 기독교인의 다양한 맥락이 성윤리와 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산모가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남성은 두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지만 동성 결혼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서구 기독교인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만 일부다처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분별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은 세계 기독교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몇 가지 의견 차이를 설명합니다. 도덕성은 대부분의 경우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화와 관련된 것은 도덕적 분별력에서 조상과 살아있는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들은 대부분의 비 서구 문화권에서 도덕적 분별력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장로의 도덕적 분별 역할은 여러 면에서 성 도덕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착적인 도덕성은 장로들의 역할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도덕의 수호자로서 원로들은 성 규범과 가치의 진정한 해석자이며, 젊은 세대를 성 규범으로 인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사춘기, 결혼, 첫 아이 출산 등 특정 생애주기에 있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여성 원로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성 공동체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는 섹슈얼리티 의식을 금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권위 밖에서 이러한 의식에 참여해 왔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선교 교회에서는 교회 의식 중에 성교육을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면 섹슈얼리티 교육은 사람들의 문화적 맥락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의식과 금기 외에도 우분투 *ubuntu*('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뜻)라는 개념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공동 생활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인간(우분투)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격 또는 인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섹슈얼리티가 단순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대와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프레임에서 질문은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무엇이 좋은가?"입니다. 내가 공동체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커뮤니티는 내 삶 전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3.1.6 근거의 상호 연관성

경전, 전통, 이성, 경험, 기타 지혜의 전통 등 모든 자료는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들 사이의 균형이 강하게 대립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자료는 당면한 상황과 맥락을 넘어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분열적인 것으로 판명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잠재적으로 열어줍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다양한 출처에 어떤 정확한 가치와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 분별력을 위한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출처가 특정 윤리적 입장에 도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상호 이해와 합의는 교회가 더 깊은 이해와 상호 학습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 분별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공통점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가 됩니다. WCC는 거의 모든 에큐메니칼 기구와 함께 회원 교회들에게 윤리적 분별의 다양한 원천들을 서로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지 규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회원 교회들은 물론 비회원 교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 모든 원천들로부터 얻은 통찰이 어떻게 그리고 왜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공유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들의 교제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회는 상호 존중, 투명성, 상호 경청의 태도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초대받습니다.

3.2 교회 간, 그리고 교회 내 의견 불일치의 원인

연구 문서 '교회의 도덕적 분별력'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문제에 대해 교회 간, 또는 교회 내에서 의견 불일치를 일으키는 두 가지 범주의 요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다양한 사회적, 교회적 접근 방식,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 인간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감정적 강도, 교회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 고정관념, 권력 불균형, 타자성에 대한 태도 등이 해석과 도덕적 추론을 형성합니다. 성경을 읽는 다른 접근 방식과 다른 출처를 사용하고, 출처에 다른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서 비롯된

요인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도덕적 지침과 관련하여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 전체에서 경전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며, 전통의 첫 번째 원천으로 경전을 이해하는 정통주의적 이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통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특정 성인의 삶과 저술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도덕적 분별력 연구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정 권위 있는 출처를 단순히 무시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관련 공동체가 다양한 출처에 호소하고 그 무게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적 성찰의 복잡성과 풍부함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적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⁶⁷⁾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에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들은 그리스도의 영감과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충실하고자 노력합니다. 교회와 친교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친교와 사랑, 친밀함을 향한 인간의 지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식하면서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마주하고 긍정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에큐메니칼 여정에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친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삶과 선교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친교"라는 것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를 반영하는 것"⁶⁸⁾입니다.

67) *Moral Discernment*, 48, para. 77.

68)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Faith and Order Paper No. 214 (Geneva: WCC Publications, 2013), 14, para. 23; 15, 25.

4. 역사의 이정표: 교회에서의 배움의 여정으로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분투

이전 장에서 도덕적 분별 과정의 중심이 되는 자료와 출처를 확인했다면, 기독교 역사의 여러 시대에 교회가 섹슈얼리티 문제와 어떻게 씨름해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회 내 대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느 시대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전통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기독교 교파마다 다르지만, 기독교 전통과 가르침의 어떤 요소가 공통된 사도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인지, 어떤 요소가 주어진 역사적 시대와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모든 표현은 한편으로는 핵심적인 기독교 신념과 가르침,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시대의 문화적 경향, 주요 윤리적 도전, 철학적 사고방식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과 성찰의 복잡한 역사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고 네 가지 중요한 시대와 특정 이정표의 발전으로 이를 설명할 것입니다.

4.1 초대 교회 역사에서 섹슈얼리티의 양상

일반적으로 유대교 전통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었지만, 고대 교회의 초기 기독교 가르침은 구체적인 기독교 이해를 설명해야 하는 이중 경계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고대 교회는 오리엔탈 세계의 일부 고대 숭배와 종교적 전통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활기찬 찬미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금욕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삶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시대의 지배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항상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거부하고 다소 엄격한 경계 내에서만 용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선한 질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교회는 매춘, 간음, 거세, 남색, 성 노예와 같은 고대 및 헬레니즘 세계에 널리 퍼진 자유주의적이고 파괴적이며 만연한 성 관습을 거부하고 다양한 영지주의 운동에 비판적으로 참여,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순결과 독신을 장려함으로써 이 세상의 위험한 유혹을 극복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따라서 수

세기 동안 순결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여겨졌습니다.⁶⁹⁾

많은 동방교부들은 결혼을 죄와 죽음에 대한 해독제로 생각했고, 섹슈얼리티를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적절한 역할을 가지며, 출산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결합되는 한에서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고대 교회의 큰 이정표는 섹슈얼리티 또는 육체적 존재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대적인 시각을 반박하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성적인 사랑을 주로 타락한 세상의 일부로 보았고 하나님의 원래 선한 창조 질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⁷⁰⁾

고대 교회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현대와 달리) 성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는 고대에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행위는 성인과 아동, 남성 대 여성, 자유인 대 노예라는 착취적 위계 관계, 다른 신체에 대한 소유권, 속박, 잔인한 권력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인간관계 패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교회의 입장은 고대의 인간관계를 특징짓는 엄청난 폭력과 착취에 대한 거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장소로서 기독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 문명은 결혼의 유대를 국가와 사회의 기초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급진화된 종교 운동과 도피주의적 영적 생활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또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자체가 사회적, 정치적 삶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에 생겨났으며"⁷¹⁾ 이러한 견해는 결혼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69) In Eastern Syria, celibacy was always viewed as the more godly way of life.

70) However, there also was another minority line of interpretation among the Church Fathers, teaching that sexual desire was present in Adam and Eve even before the fall, thereby pleading to break the strict link between sexuality and the fall (Ireneäus in the 2nd century and Pope Kallistos of Rome in the 3rd century, for instance).

71) Susan Mobley, "The Reformation and the Reform of Marriage: Historical Views and Background for Today's Disputes,"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48, no. 3 (Summer 2015), para. 5, <https://issues.cune.edu/the-lgbt-disputes-teaching-and-practice-in-the-church-2/t>

잘 일치했습니다.⁷²⁾ 또한 기독교의 결혼 이해는 로마의 현대 문화 경향에 비해 결혼과 인간 섹슈얼리티의 독특한 부가적인 특징과 인간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첫째, 기독교 결혼은 - 비록 당시에든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 제도의 맥락에서 행해졌지만 -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쌍방 순결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남편에게는 간음이 허용되지만 아내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로마 결혼의 이중 기준과 달리). 둘째, 결혼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평생의 불가분의 유대를 의미하며 이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로마 세계에서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 이상이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 인간의 섹슈얼리티, 가족에 대한 초대 교회의 가르침은 풍부하고 다양하여 여기서는 모두 소개할 수 없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의 풍부한 가르침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으며, 라틴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교회 신학 사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현대 사회과학, 의학, 심리학과 대화에 비추어 인간 조건에 주목한 20세기와 21세기의 신학적 사고의 인류학적 전환과 관련하여 이 유산을 통합하고 성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일부 정교회 신학 사상가들은 현대의 도전에 비추어 교부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⁷³⁾ 이것은 사도적 케리그마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윤리적, 사목적 지향에 대한 필요와 지속적인 탐색과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잠재적으로 인간의 거룩화,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모든 감각을 지닌 인간의 총만함에 기여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he-reformation-and-the-reform-of-marriage-historical-views-and-background-for-todays-disputes/#_ftn10

72) See Mobley, "Reformation and Reform."

73) For example: Sergius Bulgakov, John Zizioulas, Christos Yannaras, Kallistos Ware, Elisabeth Behr-Sigel, and Nonna Verna Harrison.

4.2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가족에 대한 종교개혁의 측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의 개념화와 현대의 철학적, 이념적 경향 및 사고방식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역사적 시대의 두 번째 예는 유럽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배경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는 인간의 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당시 제국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로마 교회의 영적 위계 체계로,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위한 개인의 선택보다 수도원의 순결 규율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존재가 공로 없이, 엄격한 영적 금욕주의 없이 오직 은혜로만 정당화된다는 변증법적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또한 인간을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이해하도록 해방시켰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점차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창조 질서의 일부이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해야 할 은사로서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가 사람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을 성례로 간주하는 동시에 독신이 더 완벽한 상태로 여겨져 독신 성직자를 고집하는 이중적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독신주의를 찬양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성직자 문화 안에 나란히 존재했다."⁷⁴⁾ 그러나 개신교 개혁자들은 성직자 독신주의와 결혼의 종속을 거부하고 결혼이 성사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많은 개신교 개혁가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제도였고, 따라서 세속 정부 역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므로 그 법과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 당국의 관할에 속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것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은 결혼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정치적 관행을 기독교화하는, 훨씬 더 길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세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결혼은 사법 또는 봉건적 가족 관계의 문제였으며 교회의 책임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일부일처제'(여러 아내와 연속적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남성을 의미하며, 첩을 곁에 두기도 함)가 지배적이었던 게르만

74) Mobley, "Reformation and Reform," para. 16.

결혼 관습을 기독교화하는 과정은 몇 세기가 걸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정식 결혼식의 일부로 교회 의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불법 또는 비밀" 결혼으로 가득했던 게르만 중세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⁷⁵⁾ 종교개혁기 교회의 투쟁은 결혼을 "가정, 가정의례 또는 증인이 없는 약속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교회라는 공적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⁷⁶⁾ 이러한 노력은 성적 관계를 인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결혼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독교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⁷⁷⁾

4.3 유럽 식민지 시대

세 번째 예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독교 가르침의 새로운 개념화와 주어진 시대의 현대 이데올로기 경향 사이의 또 다른 상호 작용 모델을 보여줍니다.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화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권력 확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전 세계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와 문화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19세기 동시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널드 하이엄의 말을 빌리자면, "유럽의 확장은 기독교와 상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적 관계와 첩의 문제'였습니다."⁷⁸⁾ 예를 들어 식민지 개척지에는 매춘부가 공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⁷⁹⁾ 리처드 필립스는

75) Mobley, "Reformation and Reform," para. 10.

76) Mobley, "Reformation and Reform," para. 10.

77) For further reading on the reformers and marriage, see: John Witte Jr. "John Calvin on Marriage and Family Life," <https://www.johnwittejr.com/uploads/5/4/6/6/54662393/a140.pdf>; Trevor O'Reggio, *Martin Luther on Marriage and Family*, (Andrews University Faculty Publications, 2012). <https://digitalcommons.andrews.edu/cgi/viewcontent.cgi?article=1019&context=church-history-pubs>; Carter Lindberg, "Martin Luther on Marriage and the Family" in *Perichoresis* vol 2 Issue 1 2004 pages 27-46

78) Richard Phillips, "Heterogeneous Imperialism and the Regulation of Sexuality in British West Africa,"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14, no. 3 (2005): 291.

79) Phillips, "Heterogeneous Imperialism," 292.

식민지 제국주의 프로젝트가 이성애적인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이성애 핵가족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농업 식민지화를 위한 구성 요소였다."⁸⁰⁾ 제국의 환경은 선교사와 정착민들의 행동과 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젊은 교회의 윤리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는 남성의 성적 충동은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결한 여성은 무성애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불륜은 정상으로 여겨졌지만 여성의 불륜은 혐오했습니다. 성행위에 대한 조기 입문, 인생의 특정 전환기에 성을 축하하는 것, 복수 결혼, 노골적인 성교육 문화 등 비 서구 문화의 전통적인 관습과 관행은 이교도 유산에 속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억제되고 선언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행정관, 선교사, 그리고 종종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당국은 그들의 가치에 반하는 이러한 견해를 불법화했고, 식민지 이후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청교도적인 견해와 규정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⁸¹⁾ 이처럼 식민지 유산은 빅토리아 시대에 장려된 도덕적 가치관을 통해 비서구 문화권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이전의 보다 자유로운 인식을 변화시켰지만, 특히 비서구 기독교의 영역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명시적 언어가 침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⁸²⁾ 이는 오늘날에도 교회 찬송가와 전례 언어에서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가 사실상 부재한다는 사실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탈식민주의 해석학은 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할 때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에 속합니다. 교회의 양극화로 인해 교회의 상호 의존성과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전승되고 제정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80) Phillips, "Heterogeneous Imperialism," 292.

81) Phillips, "Histories of Sexuality and Imperialism: What's the Use?" *History Workshop Journal* 63, no. 1 (Spring 2007): 143. There is a difference with Portuguese and Spanish colonies, where homosexuality was not explicitly outlawed. To some extent, this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former English and non-English colonies in regard to legalization of homosexuality.

82) See Daniel Osei Bediako-Akoto, *Towards Holistic Sexual Flourishing in Africa* (Utrecht: Boekencentrum Academic, 2017).

4.4 현대 시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과 투쟁의 여정은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트렌드와 철학적 이념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르침을 재해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동성애가 더 이상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과학과 의학으로의 인류학적 전환
2. 현대 피임 수단을 통한 의료 혁명으로 성관계와 자녀를 갖는 것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양한 젠더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차별 금지 담론
4. 남성 지배의 숨겨진 측면과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주로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고정관념에 비판적인 성인지 및 페미니스트 신학적 성찰을 위한 운동.
5.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정치적 인식과 운동성.⁸³⁾
6. 전 세계적인 HIV 및 에이즈 대유행과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차별, 낙인, 포용적 공동체에 대한 국제 에큐메니칼 담론을 상당히 변화시켰으며, 후자와 관련하여 "스웨덴 교회 주교들의 사목 서한"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다른 교회와 함께 모든 사람의 돌봄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나 국가도 그들의 단점이 아니라 잠재력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HIV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공감의 길입니다."⁸⁴⁾

83) See "A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 United Nations, September 2013," which has been accepted by two-thirds of the UN member states and which provides a firm context for 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 areas of conflict. See also the WHO "Global Plan of Ac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Health System within a National Multisectoral Response to Address Interpersonal Violence, in Particular against Women and Girls and against Children" (69th World Health Assembly, May 2016); and on using rape as a weapon of wa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20,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June 2008,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820>.

7. 문화 간, 상황 간 윤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 에큐메니칼 담론으로, "도덕적 분별"이라는 공통의 원칙에 도달하기 위해 심각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독교 윤리 교육 전통을 서로 대화로 이끌어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8. 소셜 미디어가 관계의 패턴과 가치관 공유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음란물, 아동 학대, 소아성애의 확산과 웹사이트 단속의 어려움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적 정보 제공과 교회의 성 행동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및 상업화의 해로운 힘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간략한 역사적 조사만으로도 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성찰을 심화하기 위해 서로 상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지향을 위한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민감한 영역에 대한 공동 학습이 허용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신학적 가르침에서 이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는 각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변화는 국지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전 지구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는 기독교 교회의 학습 과정은 고립된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의 윤리적 투쟁과 자리매김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교회의 에큐메니칼 교제를 분열시키는 모든 분열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섹슈얼리티의 신성함에 대항하는 파괴적인 힘에 맞서 기독교 교회의 공동 증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84) "A Pastoral Letter from the Bishops of the Church of Sweden Intellecta Tryckindustri," *Solna*, 2007.

5.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공통된 신학적 원리들

5.1 관계성: 관계 속에서 창조됨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현대적 질문들에 대해 성찰할 때, 그들은 근본적인 신학적 통찰의 지평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⁸⁵⁾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창세기 1:27의 창조 이야기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지닌 존재이며, 신성한 인격들이 보여주신 자유와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에 대한 진리,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강생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⁸⁶⁾ 각 신성한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내재(페리코레시스) 하듯이, 신성한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삼위일체적 생명의 친교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소명으로 부름받습니다. 인간은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동료 인간과 교제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질서 연구 문서인 '신학적 인류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론적 이해를 통해 모든 인류가 창조된 이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관계적이라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1장의 본문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서로 교제할 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부와의 관계로 이끌리며,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를 성취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됩니다(*synergia*).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 정체성의 본질적인 관계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통찰은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인류에 대한 현대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⁸⁷⁾

85) Indeed, these insights also mirror the assertions of the basis of the WCC.

86) Christos Yannaras, *The Freedom of Morality*, trans. Elizabeth Briere, foreword by Bishop Kallistos of Diokleia (Crestwood, N.Y.: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4), 23.

87) *Christian Perspectives on Theological Anthropology*, Faith and Order Paper 199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14, para. 82.

인간은 신비로 가장 잘 묘사됩니다: 기독교 인류학의 종말론적 차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⁸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는 참된 인간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받은 각 사람에게 속한 가치와 깊이, 존엄성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⁸⁹⁾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은 친밀한 관계에서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공동체의 구체적인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생명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삶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삶은 공동체입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⁹⁰⁾

모든 생명이 관계 속의 생명이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그리고 피조물과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겸손하게 동료 인간과 피조물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적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성명서의 한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한복음 1: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포함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와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명을 주는 관계를 추구하고 그러한 관계를 지원하는 사회적 구조와 관행을 만듭니다.⁹¹⁾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 중 하나는 섹슈얼리티라는 보편적인 선물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은 상호 필요와 사랑, 보살핌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선물은 대인 관계를 깊게 하고, 위로와 즐거움을 공유하며, 서로를 긍정하게 합니다. 또한 이 선물에는 무조건적인 수용, 개방성, 취약성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총을 추구하는 삶의 순례에서

88) An apophatic theology refers to the method of theological enquiry by negatives, while eschatology refers to the theology pointing toward the final destiny of humankind.

89) *Christian Perspectives*, 12.

90) Bishops' Conference of Norway, SAMMEN 2013:14.

91)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A Social Statement on Human Sexuality: Gift and Trust* (Chicago: ELCA, 2009), 10.

동반자와 지지가 포함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이 현실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부가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서 흐르는 에너지이며, 육체적 측면은 그 표현의 한 방식에 불과합니다."92)

5.2 인격: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닌 신성한 형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정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형상이 인격이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격은 신성한 인격의 관계성,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과 자유의 친교를 반영하는 참된 인간성의 표식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지상의 피조물인 동시에 '피조되지 않은 삼위일체'의 성상(icon)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소유주이자 중개자입니다. "개인의 고유성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존재 방식이며, 인간에게 각인된 삼위일체적 삶의 정신입니다."93)

그러므로 각 사람은 삼위일체의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성상이며 존엄과 영예를 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 인격은 성육신하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인간 인격의 완전한 공동체는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모든 인간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참된 인격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구적인 장애나 불치병처럼 보이는 약함에도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고후 12:9)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강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 인격의 독특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빛을 발하는 것은 명백한 연약함 속에서 사랑의 보살핌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94)

92) Philip Sherrard, *Christianity and Eros: Essays on the Theme of Sexual Love* (Limni, Evia: Denise Harvey, 1995), 91-92.

93) Yannaras, *Freedom of Morality*, 23.

94) *Anglican-Eastern Orthodox Dialogu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 Hope-Filled Anthropology*. The Buffalo Statement Agreed by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Anglican-Orthodox Theological Dialogue, 2015 (London:

인간은 행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 즉 역동성을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호기심 많고, 탐구심 많고, 탐구적이며, 다양성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과 아이디어를 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적인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요한일서 4:7, 19).⁹⁵⁾ 인간은 자유라는 신성한 선물로 축복을 받았으며,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과 친교의 자유를 반영합니다. 자유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자유로운 응답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의 방식입니다.⁹⁶⁾ 사실,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웅장함은 ... 변증법적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⁹⁷⁾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자유를 유지하며 창조주와 동료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자유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은 인간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 인격은 삼위일체의 위격이 하나님의 일부인 것처럼 인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품은 인간 구성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전체를 가리킨다.⁹⁸⁾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친교를 향한 모든 인간의 소명을 독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료 인간의 심오한 만남과 대화의 경험이며, 잠재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과 친교를 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Anglican Communion Office, 2015), 8.

95) Anglican-Eastern Orthodox Dialogue, *In the Image and Likeness*, 8.

96) Alistair I. McFadyen, *The Call to Personhood: A Christian Theory of the Individual in Social Relationship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2.

97) Paulos Mar Gregorios, *Cosmic Man: The Divine Presence* (New York: Paragon House, 1988), 165.

98) Vladimir Lossky, *The Mystical Theology of the Eastern Church* (Crestwood, N.Y.: Saint Vladimir's Seminary Press, 1976), 120.

인간은 독신, 수도원 생활, 평신도 봉헌 생활, 결혼 및 부부 생활, 금욕, 순결, 친밀감, 섹슈얼리티 없는 친밀감, 심지어 무성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랑과 친교에 대한 관계적이고 개인적인 소명을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사랑의 친교, 자유, 자기희생과 희생, 즉 공동체를 경험하고 육성하는 인격적 관계와 성장에 대한 소명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생물학적 성을 넘어선 섹슈얼리티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성서적 은유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⁹⁹⁾이지만, 육화되고 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긍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삶의 중심 도덕 원리인 고행과 연결된 일종의 반(*anti*)-육신적 사고는 필멸의 성적 죄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물질을 죄는 아니더라도 창조의 열등한 부분과 연결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대의 '범성애주의(*pansexualism*)'의 위협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인간의 몸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만족을 요구하는 저급하고 '더럽고' 동물적인 경향에 대항하는 고귀한 투쟁으로서의 영성 윤리를 고무시켰습니다.¹⁰⁰⁾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알지 못하며 인간의 영화나 육체의 타락을 모두 거부합니다:

몸은 모든 종류의 학대(영적-기복적 또는 쾌락주의적)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고전 6:19). 영혼만 불멸한다는 모든 이상주의적 믿음에 맞서,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 전통에 따라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용어로 육체를 인간 존재의 열등한 부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 영과 물질은 동등하게 변화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항상 재창조와 변형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전체적 생명체로서만 공동으로 옹호될 수 있습니다.¹⁰¹⁾

창조주의 놀라운 선물인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차별, 박해, 폭력, 심지어 죽음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인간화를 계속 경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없는

99) Bishops' Conference of Norway, Sammen 2013:15.

100) Rowan Williams, "The Body's Grace," in *Theology and Sexuality: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ed. Eugene F. Rogers (Oxford: Blackwell, 2002), 309-21.

101) Nikos A. Nissiotis, "Secular and Christian Images of Human Person," *Theologia* 53 (1982): 956, 962.

자비로운 사랑의 친절을 더 넓은 세상에 넘치게 하라는 소명에 충실하려면, 목회 소명과 사명에 모든 인간의 안녕을 추구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목적 돌봄은 ...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시기에든, 예외 없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것입니다.¹⁰²⁾ 여기에는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인 인간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 포함됩니다.

5.3 신체화(Embodiment): 육체적 본성의 선행을 긍정하기

인간의 몸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파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몸입니다. 몸은 인식하고 동시에 인식당할 수 있습니다. 빵을 쓰다듬을 때, 손은 빵을 느끼고 빵은 손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범한 육체를 통해 주변 세상과 소통하고 음식, 친밀감, 치유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육체를 주로 부정적으로 보는 종교적, 철학적 경향이 있었지만, 교회 역사에서는 육체적 존재를 인간다운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학적 개념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원론적 관점은 여전히 강력하고 유혹적이었습니다. 아가서와 같이 몸과 에로틱한 사랑에 관한 성서의 시는 종종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언어에서 평범한 육체적 몸과 그 필요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기독교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몸을 긍정하는 신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¹⁰³⁾ 전 세계적으로 물질과 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는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창조와 성육신 교리의 중심성에 호소함으로써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인간의 육화를 포함하여 창조의 본래적이고 의도적인 선행에 대한 깊은 확언으로

102) Thomas Hopko, *Christian Faith and Same-Sex Attraction: Eastern Orthodox Reflections* (Ben Lamond, Calif.: Conciliar Press, 2006), 112.

103) One example of this is Pope John Paul II's *Theology of the Body*, a series of lectures for general audiences, 5 September 1979–28 November 1984, https://www.piercedhearts.org/jpii/theology_body_audiences/a_theology_body.htm.

웁합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은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 계시됩니다. 예수님에게 육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취약성을 얼마나 깊이 긍정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들의 몸에 대해 가져야 할 존중, 즉 "하나님은 오직 다른 사람의 몸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¹⁰⁴⁾ 심오한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존재의 선함을 분명히 확인한 교부로는 2세기 리옹의 이레네우스 주교가 있습니다. 그는 구속의 과정에서 육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신성한 빛과 육체 사이의 연결을 회복하셨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나누셨기 때문에, 신성한 빛은 그분의 육체에서 우리 몸으로,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으로 포괄적인 구속 운동을 통해 발산됩니다.¹⁰⁵⁾

4세기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땅에서 파생된 실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것과 지상의 것을 혼합하여,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통해 각각의 즐거움에 친밀감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¹⁰⁶⁾ 그레고리는 거울의 은유를 사용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울처럼 신성한 근원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여 그 근원의 형상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몸은 "거울의 거울"입니다.¹⁰⁷⁾ 몸도 신성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을 매개로, 온몸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악된 상태는 우리를

104) Susannah Cornwall, *Theology and Sexuality* (London: SCM Press, 2013), 21-24. Quotation is from Gerard Loughlin, *Alien Sex: The Body and Desire in Cinema and Theology* (Oxford: Blackwell, 2004), 12.

105) Irenaeus of Lyon, *Against Heresies* 4.20.2.

106) Gregory of Nyssa, "On the Creation of Humanity," 2.2, quoted in Nonna Verna Harrison, *God's Many-Splendored Image: Theological Anthropology for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0), 114. See also Manoj Kurian, "Critical Analysis of Churches' Stand on Human Sexuality and a Way Forward," in *A Theological Reader on Human Sexuality and Gender Diversities: Envisioning Inclusivities*, ed. Roger Gaikward and Thomas Ninan (Utrecht: CSA Kerk in Actie, NCCI, 2017),

107) Gregory, "On the Creation of Humanity," 12.9, quoted by Harrison, *God's Many-Splendored Image*, 115.

배신하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물질 세계에 몰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될 때, 몸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모든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놀랍게도 니사의 그레고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섹슈얼리티 행위 자체와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가서 주석에서 영혼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합 방식을 묘사하면서 육체적 사랑의 기억을 억압하는 것을 육체적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견해는 좀 더 통합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선함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동적이고 육화된 자아는 섹슈얼리티를 지닌 자아이기도 합니다. 에로틱한 욕망은 우리의 육화된 본성에 속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소유, 통제하거나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그 활동이 우리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완 윌리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신적인 섹슈얼리티 관계에서 생기는 기쁨은 "몸의 은총"이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¹⁰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몸 신학은 품위 있고 허용되는 몸만이 아니라 모든 몸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학은 문화에서 유행하는 몸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광고, 상업 문화는 완벽하고 젊고 건강한 이상화된 몸을 보여주는 반면, 노약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외모가 다르거나 다른 능력을 가진 몸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는 육화된 인간 존재의 연약함 속에 거하시며 치유와 열정적인 포용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침해당한 예수님의 몸으로 돌아갈 근거가 있습니다.¹⁰⁹⁾

5.4 코이노니아: 완전한 친교를 향해 성장하는 포용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과 직제 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108) Rowan Williams, *The Body's Grace*, Address originally delivered as the 10th Michael Harding Memorial Address to the Lesbian and Gay Christian Movement in 1989. <https://www.anglican.ca/wp-content/uploads/2010/10/the-bodys-grace.pdf>.

109) See Elisabeth Gerle, *Passionate Embrace: Luther on Love, Body, and Sensual Presence* (Eugene, Ore.: Cascade Books, 2017).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교 의식 또는 성례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고전 10:16 참조)이 거듭 거듭 갱신됩니다.¹¹⁰⁾ 이러한 참여는 회원과 공동체를 서로 결속시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삼위일체의 생명에 근원을 둔 성만찬은 교회가 살아가는 선물인 동시에 화해와 치유의 희망으로 상처받고 분열된 인류에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선물이다.¹¹¹⁾ 이것은 비인간화, 공포, 존엄성 결여의 감정이 교회에 피해자와 동행하는 데 필요한 표현으로서 화해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대적 징후가 분명한 상황에서 교회의 비전이라고 강조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 학자들은 우분투*Ubuntu*가 상호 연결된 또는 집단적 인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¹¹²⁾ 우분투는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초대합니다(레 19:18; 막 12:31; 마 19:19; 22:39).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개념에서도 비슷한 강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생은 고대 아시아의 공유 공동체 및 경제 개념으로, 각자가 공동체 전체의 삶에 의존하고 기여하면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수막 카와이*Sumak Kawsay*는 라틴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창조에 대한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케추아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삶의 충만함, 웰빙,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 개념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긍정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맥락에서 하나님은 인류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호하면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적용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어 왔지만, 여기에는 모든 배척받는 집단이 포함됩니다. 데이비드 J. 보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의 희생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즉 사회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며, 종종 너무 광범위하여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110)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Faith and Order Paper No. 214 (Geneva: WCC Publications, 2013), 13, para. 21.

111) *Towards a Common Vision*, 5, para. 1.

112) Kapya J. Kaomo, "The Good Samaritan and Minorities in Africa: Christianity, the US Christian Right and the Dialogical Ethics of Ubuntu,"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55 (2016 Special Issue): 176-95.

느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¹¹³⁾

이렇게 볼 때, 성 소수자는 인간성을 빼앗는 사회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보호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동성 관계 same-sex relationships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원하십니다. 야훼는 지극히 작은 자, 즉 사회적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은 차별과 폭력, 강간, 투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공통의 인간성을 비하하는 억압적인 족쇄를 깨뜨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 즉 정의로 정의할 때 우분투의 가치를 반영합니다(눅 4:18, 마 12:18, 사 42:7).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정의에 편향된 '급진적 이웃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 사랑-정의는 모든 섹슈얼리티와 사회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보이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웃에게서 하나님을 보도록 인류에게 도전합니다. 기독교적 사랑-정의는 급진적이며, 사회 정치적, 예언자적 책임을 수반하며, "인기보다 정의"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¹¹⁴⁾ 데스몬드 투투의 말처럼:

우리가 공동의 인간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 서로의 운명에 묶여 있고, 함께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함께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함께해야만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 인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조화롭게 사는 영광스러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¹¹⁵⁾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해석되는 차이 없이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합니다.¹¹⁶⁾ 하나님의 가족 모델은 성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에 풍부한 함의를 준다. 또한 교회가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도덕적, 목회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113)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436-37.

114) Naim Ateek, *Justice and Only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89), 90.

115) Desmond Tutu, *God Has a Dream* (London: Penguin Random, 2004), 23-24.

116) Kaomo, "The Good Samaritan," 104-6.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가 작성한 WCC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¹¹⁷⁾ 사라 코클리는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신성한 사랑의 결속인 성령의 이끌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간을 기쁘게 하고 매혹시키며 불을 지핀다고 썼습니다.¹¹⁸⁾ 성령의 활동은 항상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치하여 연합하기도 하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신성한 사랑의 끈으로서 영이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만큼, 영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구별을 지키십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은 인간을 하나로 묶어 연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 사이에 개입하여 인간의 완전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삶의 방식과 연합하시는 성령은 소유하고 남용하고 통제하려는 타락한 욕망을 점진적으로 깨뜨리고 바로잡으며, 천교의 완전한 맛과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인도합니다.

5.5 케노시스: 주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참조: 막 16:15).¹¹⁹⁾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눈먼 자, 앓은뱅이, 문둥병자를 돌보시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를 환영하시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권위에 도전하신 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때때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¹²⁰⁾

'생명을 향한 동행' 문서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통찰이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차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117) Jooseop Keum, ed., *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Geneva: WCC Publications, 2012), para. 19.

118) See Sarah Coakley, *God, Sexuality, and the Self: An "Essay on the Tri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19) *Towards a Common Vision*, 33, para. 59.

120) *Towards a Common Vision*, 36, para. 64.

성령의 놀라움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변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주변부 사람들은 종종 어떤 배타적인 힘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시급성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투쟁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¹²¹⁾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해 교회는 신학적, 교리적 논쟁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타인의 성적 욕망과 탐욕에 희생되거나 성적 지향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의 경험과 피지배적 지식에서 이해를 얻습니다. 기독교 윤리적 분별의 원천(성경, 전통, 이성, 경험, 그리고 추가적인 토착화된 도덕적 분별의 원천)은 종종 다수의 통찰과 경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사회와 교회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환영하고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한 대화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주변부나 교회 공동체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고 옹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특히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원치 않게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별한 사람, 성 소수자, 성 전환(인터섹스 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난민, 많은 국가에서 큰 건강 위험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수감자와 같은 다양한 그룹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회는 케노틱한(*kenotic*) 태도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돌보고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케노시스(자기 비움)를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의 특징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빌 2: 6-7) 예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자기 비움의 신성한 사랑의 운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하여금 교회 안팎의 주변부에 있는 이들에게

121) *Together towards Life*, paras. 35, 38.

거침없는 자기 내어줌의 정신과 태도로 다가가도록 부추기며, 이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¹²²⁾

케노시스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영적, 도덕적 태도는 힘없는 힘으로 나타납니다.¹²³⁾ 그것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치유와 화해, 완전한 친교를 향한 첫걸음으로서 가해자의 불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로의 초대" 문서는 교회가 사회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세력을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주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는 섹슈얼리티 및 성별 다양성(인터섹스 또는 트랜스젠더), 소수자들이 겪는 폭력, 괴롭힘, 강간, 법적 및 사회적 차별, 기타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포함됩니다.¹²⁴⁾ 창세기 16장과 21장의 하갈에 대한 학대, 창세기 32장의 디나의 강간과 그에 따른 폭력, 사사기 19장의 첸의 강간과 죽음, 다말의 강간,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딸의 희생 등 성경 곳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케노시스적 태도로 다가가는 교회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목회적, 신학적 응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의 맥락에서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는 온전함과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섹슈얼리티와 트랜스젠더 소수자 사이에서 종종 발견되는 인내와 희망의 영성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을 포함합니다.

122) See Aristotle Papanikolaou, "Person, Kenosis, and Abuse: Hans Urs von Balthasar and Feminist Theologies in Conversation," *Modern Theology* 19, no. 1 (2003): 41-65.

123) Sarah Coakley, "Kenosis and Subversion: On the Repression of 'Vulnerability' in Christian Feminist Writing," in *Powers and Submissions: Spirituality, Philosophy and Gender*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ing, 2002), 3-39.

124) Gerald West, Charlene Van der Walt, and John Kaoma Kapya, "When Faith Does Violence: Reimagining Engagement between Churches and LGBTI Groups on Homophobia in Africa,"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2, no. 1 (2016), <https://doi.org/10.4102/hts.v72i1.3511>.

케노틱한 사랑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친교의 총만함으로 자라게 하신 공유된 인류의 은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 공유된 인류성은 우분투 또는 급진적 이웃주의라는 개념으로 잘 표현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급진적 이웃주의 *radical neighbourism*'의 윤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신분도, 인종도, 국적도, 성적 취향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오직 인간(*muntu*)으로만 식별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이름 없는 사람의 지킴이로 이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자기 이익 추구가 아니라 이타적인 보살핌과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모든 생명은 신성합니다. 우문투의 공개적인 상처는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주변부의 도덕적 부름에 응답하도록 움직였습니다. 연민에 감동한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신성한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초대합니다.

케노시스, 우분투, 상생, 수막 카와이, '급진적 이웃주의'의 윤리는 사람들이 생명을 부정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타인이나 자신을 생명을 부정하고 굴욕적인 관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회가 성소수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회는 인간과 공동체가 존엄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마 25:33-46). 교회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길에서 모든 사람을 대화에 포함시킴으로써 포용적이고 신성한 대화를 반영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6.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폭력

6.1 언어와 담론

섹슈얼리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항상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이 처음 인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었을 때,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그 선물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생명의 신성함을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해야 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그것을 묘사하는 언어를 포함하여 인간의 왜곡, 비인간화, 폭력에 의해 종종 남용되어 왔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총체적인 대화는 순례자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와 담론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섹슈얼리티라는 선물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많은 언어와 담론이 생명을 긍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문화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가 더럽고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치심을 주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침묵을 조장하고 담론의 공백을 만들었으며, 비인간적이고 차별, 배제, 폭력을 조장하는 관행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중심 사회에서 기업과 기업은 섹슈얼리티를 상품 판매에 이용하거나 권력과 조작의 도구로 사용하며 불의를 지지하고 조장함으로써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점을 왜곡합니다.¹²⁵⁾ 이러한 상황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침묵하기 보다는, 누가 이 대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에 대한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125) 125. See also Kelly Brown Douglas, *Stand Your Ground: Black Bodies and the Justice of God* (Maryknoll, N.Y.: Orbis Books, 2015). She brings to the fore questions of who shapes the popular human sexuality language by discussing the derogatory language used against the Black sexuality rooted in the North American racial context. According to her, "The result of the White cultural attack upon Black sexuality is that it has rendered the Black community practically silent in terms of sexual discourse. So unless the Black community decides to resist the white categorization by engaging in 'a frank, consistent sexual discourse' . . . the Black sexuality in all its complexity will continue to be ravaged by the sexual politics of White culture" and the Black community will be disempowered in addressing such significant matters of life and death for their communities".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는 순례자들이 생명을 긍정하고 사랑, 은총, 존엄, 정의의 가치가 담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언어에 접근하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거룩한 언어와 담론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는 순례의 길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상호 관련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짚어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온 전통을 회복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여정의 비전과 도전은 섹슈얼리티, 영성, 신앙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와 다양한 대화 환경에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앙 기반 접근 방식과 권리 기반 접근 방식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신앙에 기반한 언어는 각 종교적 전통에 따른 윤리적 가치, 행동 기준, 금기 사항을 정당화합니다. 반면 세속적 권리 기반 언어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적 기준과 행동 강령을 정당화하며, 여기에는 각 개인의 본질적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대화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말하기 방식이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계 집단 밖의 언어와 담론 형성에 참여하며 사회와 문화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¹²⁶⁾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항상 바람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곡한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에덴동산의 금단의 열매(창 2:17)에 관한 것처럼 낙인과 판단이 전면에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와 담론이 교회, 성별, 인종, 계급 등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한 민족의 문화적 이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126) *Statement 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CC Executive Committee, Lübeck, Germany, 26 September 2008,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executive-committee/2008-09/statement-on-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언어의 적절성 역시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품위 있는 언어 문화를 위해 언어의 청지기이자 옹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담론의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보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기타 전자 매체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과 씨름하는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일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언어가 해방되었습니다. 속어와 완곡한 표현은 물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마음과 영혼과 몸의 깊은 연결로서의 사랑의 장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기반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와 담론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언어의 상품화와 탈-인간화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는 존엄한 언어는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무례와 착취의 태도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것은 언어의 부패와 쇠퇴입니다. 사랑, 존중, 수용의 태도가 새롭게 재생되고 배양되는 것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존엄한 언어의 재건과 옹호에서 비롯됩니다. 섹슈얼리티가 인간관계를 위한 선물로 이해되고, 따라서 인간 사이의 가장 내밀한 대화로 이해된다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순례의 길에서 대화할 때 적절한 인간의 섹슈얼리티 언어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교회가 각자의 맥락에서 기존의 용어를 탐색하고 교회 친교, 종교 간 공동체, 각자의 문화와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대화를 통해 배우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언어가 저속하고 비하하는 어조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며 악마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어의 적절성은 대화에 또 다른 차원을 가져다줍니다.

6.2 섹슈얼리티 및 젠더 기반 폭력

WCC는 섹슈얼리티와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10년'(1988-1998) 동안의 연대 방문 보고서는 여성의 삶과 존엄성이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의 폭력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력 극복 보고서에서 :
에큐메니칼 10년 2001-2010,¹²⁷⁾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평화와 분쟁의
시기에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요청"과
정의로운 평화 동반자 (2012),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 10년 기념을 위한
세계협의회 보고서(2018)에서도 경제적 착취와 가정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잔인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역 사회와 사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저지르는 폭력은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이자 비극이며 최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인의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있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폭력은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18년 옅살라 회의에서 WCC 실행위원회는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섹슈얼리티 및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어린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할 것, 그러한 폭력을 죄로 선언할 것, 그러한 폭력을 유발하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¹²⁸⁾

성폭력(인간의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성별 또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기대 또는 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해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자 개인과 생존자는
물론 가족과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가정, 교회, 지역사회, 길거리 등 모든 지역, 모든
문화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현상인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127) *Overcoming Violence: The Ecumenical Decade 2001-2010* (Geneva: WCC Publications, 2011), <http://www.overcomingviolence.org/fileadmin/dov/files/OvercomingViolence.pdf>.

128) WCC Executive Committee, "Statement on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2018 Nobel Peace Prize," 7 November 2018, para. 11,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executive-committee/uppsala-november-2018/statement-on-sexual-and-gender-based-violence-and-the-2018-nobel-peace-prize>.

가정과 직장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강압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 성적 행위 시도,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접근,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사람의 섹슈얼리티에 반하는 행위 또는 기타 지시된 행위. 강압은 모든 정도의 위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힘 외에도 심리적 협박, 공갈 또는 기타 위협(예: 신체적 상해의 위협,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한 상태, 잠든 상태 또는 정신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는 성기, 기타 신체 부위 또는 물건을 사용하여 외음부나 항문에 신체적으로, 강제로 또는 기타 강압적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강간이 포함됩니다(경미한 경우라도). 이러한 시도를 강간 미수라고 합니다. 두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집단 강간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에는 입과 성기, 외음부 또는 항문 사이의 강제 접촉을 포함하여 성기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폭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¹²⁹⁾

젠더 기반 폭력에는 위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별 또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기대 때문에 개인에게 가해지는 다른 형태의 폭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남성 또는 여성과 같이 추정되는 성별에 대한 기대에 반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나 언어적 모욕(성적 여부와 관계없이)도 포함됩니다. 또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는 종종 깊은 심리적, 때로는 신체적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상처 외에도 때때로 사망을 포함한 '더 숨겨진 상처', 즉 트라우마와 경험의 유산인 기타 심리적 상처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매춘, 자살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높은 비율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가해자, 성폭력 목격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기관의 맥락에서 성적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증폭될 수 있으며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 사이에서 성적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수치심과 무력감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곳에서는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순례의 과제는 정의를 행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치유를 가져오고 온전함을

129) See the WHO's full definition of sexual violence in "Sexual Violenc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149,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2495/9241545615_eng.pdf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취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즉 은혜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니샤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결혼은 합법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 즉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위를 갖는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학대적인 관계로 변질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은 그녀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섹스에 집착하는 권위주의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성 파트너를 가졌지만 콘돔 사용을 거부했고, 신앙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HIV에 감염되어 그녀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의지에 반해 임신을 강요했고, 피임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녀의 결혼 증명서는 사망 증명서가 되었습니다.¹³⁰⁾

위의 이야기는 성 및 젠더 윤리 담론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위치시키고, 인간의 섹슈얼리티, 젠더 정의, 여성에 대한 폭력, HIV와 에이즈, 도덕적 분별의 주체로서의 여성, 경제 정의의 중요한 교차점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는 고유한 이야기이지만, 그 특수성을 초월하는 질문과 관점을 열어줍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의 폭과 깊이는 엄청나게 넓고 깊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특히 이러한 형태의 폭력에 직면한 일부 집단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6.2.1 여성

전 세계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¹³¹⁾ 남성 역시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성적, 정신적 학대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130) Fulata Moyo, "Can Divorce Be a Solution to Marital Problems in a Christian Marriage?" *Ecumenical Review* 56, no. 4 (October 2004): 437-47.

131) See WHO Factsheet *Violence against Women*: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

압도적으로 여성이며, 여성이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 및 경찰 기록은 가정 내 섹슈얼리티 및 신체적 폭력에 대한 신고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접수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결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 중인 여성이 경험하는 특정한 형태의 신체적, 성적 폭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종종 여성의 신체 소유권에 대한 문화적, 성경적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몸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것이 정당한 대응으로 간주되는 사회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에 대해 불평하면 남편의 요구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 줍니다. 아내가 외도를 발견하고 불평하면 남편은 결혼한 사람이니 참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혼인 외의 관계에 연루된 경우, 남자는 아내와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한 여성은 일부 교회에서도 낙인과 차별에 시달립니다. 교회에서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후 재혼을 허용하는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재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일부 환경에서는 재혼하는 여성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이나 이혼하기 전에도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혼하거나 사별한 남성은 불쌍히 여기고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아내를 찾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유가족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비인간적인 의식을 거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남성 친척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자녀와 재산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유가족은 빈곤한 삶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동거 가정부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여성이나 소녀들은 종종 남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또한 아내와 소녀 자녀가 성적 학대를 발견하면 오히려 남편, 아버지, 형제 또는 아들을 유혹한 가정부를 구타하는 데 동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여성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집에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은 또한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남성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당할 위협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오래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커밍아웃한 여성들이 대우받는 방식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성과 연대하는 교회들의 20주년

기념 자메이카 간담회에서는 교회 내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막기 위해 교회 내 미투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 성폭력 및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을 막기 위해 교회가 채택해야 할 도구로서 '목요일은 검은색' 캠페인에 대한 강한 긍정도 있었습니다.¹³²⁾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교회 여성들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에의 초대는 순례자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관행, 경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에너지"에 접근하는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¹³³⁾

6.2.2 어린이

"어린이에 대한 교회의 약속" 문서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순례의 길 대화에 참여한 모든 교회가 공통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¹³⁴⁾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모욕이며 이는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어른에게 의존하지만, 스스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132) The Thursdays in Black campaign (a WCC initiative) emerged from the Decade of Churches in Solidarity with Women (1988-1998), inspired by the Mothers of the Disappeared in Buenos Aires and the Black Sash movement in South Africa. The campaign aims to raise awareness by highlighting the plight of those abused sexually and committing to eradicate such violence. The wearing of black on Thursdays is a sign of solidarity with the victims of such abuse. See <https://www.oikoumene.org/en/get-involved/thursdays-in-black>.

133) *An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I. Growing in fellowship.*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an-invitation-to-the-pilgrimage-of-justice-and-peace>.

134) See *Churches' Commitment to Children: Churches Uniting for Children in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Geneva: WCC Publications, 2017),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wcc-programmes/public-witness/rights-of-children/churches-commitments-to-children>. This work was undertaken with UNICEF.

때까지는 어른에게 의존합니다.

어린이는 몸과 마음, 정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한 섹슈얼리티를 실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성인의 성적 자아실현과 표현을 충족시키기 위해 근친상간을 포함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성착취는 미성숙한 신체가 폭력과 부적절한 사용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유발합니다. 또한 성병 감염, 조기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위험도 있습니다.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 아동이 가족 내에서 또는 아동의 가족이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경에서는 교육, 의료, 고용, 사회 및 종교적 통합, 미래의 결혼 파트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아동과 그 관계까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매춘은 아동이 폐허에서 벗어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손질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아동 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앞서 언급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조산 위험과 그로 인한 많은 문서화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어린 신부와 어머니는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도 거의 이수하지 못하고 자신과 자녀의 건강 악화로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습니다.

부모들은 또한 경제적 이유로 딸을 결혼시킵니다. "아동 결혼은 대부분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 소녀들은 [부모들이] 분쟁의 시기에 생존하기 위해 팔아넘기는 마지막 자산입니다. 이 소녀들은 보통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정 폭력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빈곤에 더 취약해집니다."¹³⁵⁾

더욱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은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의 증거와 가르침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는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두 가지

135) Ekua Yankah, a researcher for Women and Health Alliance International (<https://waha-international.org>), quoted in Stav Dimitropoulos, "Europe Wasn't Ready for Child Brides, *BRIGHT Magazine*, 16 February 2018, <https://brightthemag.com/syria-refugees-marriage-child-bride-human-rights-d8f045e924fb>.

심오하고 근본적인 신학적 원칙, 즉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보호와 포용을 위해 어린이를 우대해야 한다는 마태복음 19장 14절의 예수님 직접 가르침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랑, 정의, 평화가 있고 어린이가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소속감을 갖는 상황을 긍정합니다.

위의 착취 사례를 보면, 이는 아동의 인격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동은 성적 학대자의 손에 의해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학대를 당한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며,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성인이 된 많은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습니다. 이는 수치심, 우울증, 낮은 자존감, 건강한 성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평생을 싸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약물로 중독되는 것은 이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는 고의적으로 파괴적인 성행위를 하고, 일부는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절망과 왜곡된 우려로 인해 스스로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트라우마 변화와 치유에 투자하여 이전에 학대를 당한 성인들이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섹슈얼리티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많은 교회가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아동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제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교회가 복음의 부름을 받아 교회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과 그들이 속한 사회 안에서 아동 성 착취를 종식시키는 데 독특하고 강력한 기여를 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교회는 아동의 가치를 분명하게 대변하여 아동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치유를 지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치유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가해자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6.2.3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

교회는 복음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민과 자비의 사역에 참여하며(눅 4:18-19 참조), 깨어진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키고 증오와 소외로 갈라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받았습니다(고후 5:18-21 참조). 실제 또는 인식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근거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의 재앙은 교회가 폭력을 멈추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치유와 화해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 이는 종종 성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가 아니어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간성 또는 기타 부적합한 정체성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또는 표현과 관련된 폭력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은 길거리, 공공 공원, 학교, 직장, 개인 가정, 병원, 교도소, 경찰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낯선 사람이나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혐오 범죄의 공통적인 특징은 잔인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피해자의 경우 신체가 절단되거나 심하게 화상을 입거나 거세된 채로 발견되거나 성폭행의 흔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 노동에 종사하거나 구금되어 있는 트랜스젠더는 치명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폭력의 위험에 특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인권 인권최고판무관(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동기에 의한 폭력이 광범위하고 잔인하며 종종 처벌받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또한 구금, 진료소 및 병원에서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피해자가 됩니다.¹³⁶⁾ 또한 위원회는 '일상적 차별'은 고착화된 차별적 태도에 의해 조장되고, 효과적인 차별 금지법의 부재로

¹³⁶⁾ UN: LGBTQI+ Free and Equal NOT Criminalized, <https://www.un.org/en/fight-racism/vulnerable-groups/lgbtqi-plus>.

인해 촉진되며 교육, 의료, 고용, 주거, 가족 내 등 모든 곳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제도, 교육, 재산, 공공 서비스, 노동 시장 및 형법에서의 소외를 통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을 노동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낙인과 차별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¹³⁷⁾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을 가진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여 일상적으로 폭력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도 이성애자 및 시스젠더 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는 그들의 삶에 심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복지, 자존감, 자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완전성과 온전함에 영향을 미치고 침해하며, 건강하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변부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적 틀 밖에서 살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성폭력, 학대, 착취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소년, 청년의 자살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하고 가족, 학교, 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적 및 젠더적 존재로서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용하는 성인으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7) Elaine Panter, Tanya Primiani, Tazeen Hasan, Eduardo Calderon Pontaza, (eds), Antidiscrimination Law and Shared Prosperity: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of Six Economies and Their Impact on the Equality of Opportunities of Ethnic, Religious, and Sexual Minorit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992 (World Bank Development Economics Global Indicators Group, 2017)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26242/WPS7992.pdf>.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폭력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성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강요는 건강하고 통합된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의 한 형태이며, 이는 개인의 성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이 얽히면 '교정 성폭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학대, 폭력, 착취에 취약해지거나 심지어는 취약성 때문에 가족과 지역 사회, 심지어 공공 정책의 지원 없이 협박이나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인 사람들도 성폭력에 매우 취약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이분법적 성별 체계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그 사이를 오가는 과정에서 이분법적 성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인해 성적 굴욕과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 또는 간성인에 대한 폭력은 자기 인식의 초기 단계, 즉 피조물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아감이 주변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부정, 비난, 굴욕감, 신체에 대한 원치 않는 개입(예: 간성 아동에 대한 외과적 개입 또는 성전환자의 성별 재지정 절차에 대한 금지 및 방해)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불변의 것으로 이해되는 성별이해에 근거하여 행사되는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이분법적 성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신체와 성전환자 자신은 종종 비정상적이고 인간 이하이며 존엄성을 가질 가치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며 따라서 분노와 잔인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성범죄자나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됩니다.

사회 운동, 학자, 일부 의원들은 이미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 및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의 특수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피해자가 (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적이거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의 측면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의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며, 따라서 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을 정당화됩니다. 이성애 이외의 성적 지향과 시스젠더 이외의 성 정체성 및 표현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곳에서도 (유엔과 다른 많은 국제기구의 이러한 법률 근절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윤리적 관점은 교회가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하고 이에 맞서 싸우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존중과 존엄성, 사랑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신념은 특정 유형의 성행위 또는 특정 측면과 동성 관계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교회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소수자 또는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에 침묵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많은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속한 교회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폭력 대응에 있어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2018년 11월 읍살라에서 만난 WCC 집행위원회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촉구했습니다:

WCC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과 여성, 어린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반복할 것, 그러한 폭력을 죄로 선언할 것, 그러한 폭력의 결과를 명확히 명시하는 성희롱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폭력을 유발하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¹³⁸⁾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정의가 그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으며 교회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웃이 폭력의 위협에 직면하거나 폭력을 경험할 때 안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³⁹⁾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는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는 사랑과 타인을 위한 삶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표징이자 도구이며, 사람들을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 개개인만큼이나 교회에도 의무를 부과합니다. 순례의 길에서 이러한 의무에 대한 대화는 교회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및 표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받는 폭력을 없애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138) 138. WCC Executive Committe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139) See John 10:10.

6.2.4 장애인과 함께 하기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은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마치 무성적인 존재인 것처럼 간주하는 탈성별 개념부터 시작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문제, 장애인에게 감수성이 없는 성경 해석 등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 특별한 노력을 요청합니다.

장애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화는 모순적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만족스러운 관계가 필요 없는 무성적인 '천사'로 여겨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성범죄자처럼 위험한 섹슈얼리티를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섹슈얼리티 근절은 우생학적으로 추진되었고, 장애 근절은 섹슈얼리티 근절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부모는 그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결혼을 선택하더라도 사회는 그들을 거부하는 등 강제적인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함께 존재하는 현실은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타인의 손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정책으로 인해 성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처벌의 위협을 받으면 낮은 방식이나, 해로운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더욱 낙인찍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12~31에서 성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는 인체의 각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나 의학적 상태에 관계없이 인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의 한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도 영향을 받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몸과 그 지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미국 지적 및 발달 장애 협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성적 표현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안전하게 발견하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정과 정서적, 성적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친밀감, 안전이 가득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결혼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성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장애인도 하나님과 서로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표현할 권리와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교회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¹⁴⁰⁾

6.2.5 이주민, 난민, 인신매매

1948년 창립 이전에도 제2차 세계대전 난민을 돌보는 일은 WCC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교회들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WCC는 난민, 이주민, 국내 실향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이동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동 중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섹슈얼리티 및 젠더 기반 폭력(SGBV)은 에큐메니칼 가족이 규탄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주로 이주민의 이동과 이들이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하지만, 이동하는 사람들은 뿌리 뽑히는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에 직면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 난민은 고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섹슈얼리티와 젠더 기반 폭력에 취약합니다. 2017년 8월 미얀마 로힝야족의 경우처럼, 무국적 로힝야족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집중된 공격과 집단 강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이웃 국가로 피난을 떠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 지역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이나 국경 보안군에 의해 섹슈얼리티를 침해당하거나 그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목적지인 난민 캠프나 국내 실향민 캠프에 도착한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UN High

140) "Sexuality," a joint position statem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rc, 2008, reviewed and extended without revision, 2013, <https://www.aaid.org/news-policy/policy/position-statements/sexuality>.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많은 난민 상황, 특히 폐쇄된 캠프에 난민을 모이는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행동 규범과 제약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 여성과 소녀들은 다른 난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무리를 지어 강간을 당할 수 있으며, 임시 지도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시도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캠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소위 '보호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 생활의 좌절감은 가족 내에서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리스 모리아와 바시의 수용 및 신원 확인 센터(RIC)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화장실은 보호자가 없는 여성이나 어린이는 어두워진 후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낮에 목욕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에서 한 여성은 두려움 때문에 두 달 동안 샤워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팀에게 말했습니다.¹⁴¹⁾

그러나 갠단이나 캠프의 임시 지도자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이 난민이나 국내 실향민 여성과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수없이 있었습니다.¹⁴²⁾ 평화 유지군과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의 잘못된 행동은 국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들과 뿌리 뽑힌 사람들 사이의 명백한 권력 남용 사례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에 의한 착취라는 점에서 매우 불쾌한 형태의 성착취입니다.

2018년 2월 라이베리아에 이어 아이티에서 15년 이상 지속된 학대를 폭로한 옥스팜 스캔들은 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¹⁴³⁾ 최근 시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식량과 기타 기본적인 필요품을 분배하기 위해 구호단체와 계약을 맺은 제3자와 현지 공무원에 의해 이러한 폭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난민 여성들은 원조를 대가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착취가 너무 만연해 일부 시리아 여성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원조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공했다고 생각할까봐 배급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제3자와 현지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이

141) "Women and Children Threatened by Sexual Violence at Refugee Reception Centres in Greek Islands," UN News, 9 February 2018, <https://news.un.org/en/story/2018/02/1002421>.

142) Catherine Powell, "#MeToo Hits the Humanitarian Aid Sector: Time to Close the Accountability Gap," blog post for Women Around the Worl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7 March 2018,

143) Naomi Tulay-Solanke, "The World Is Shocked that Aid Workers Are Sexual Abusers. I'm Not.," BRIGHT Magazine, 15 February 2018, <https://brightthemag.com/liberia-oxfam-aid-humanitarian-sexual-abuse-metoo-50a82d4f443e>.

국제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시리아의 위험한 지역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착취를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¹⁴⁴⁾

역설적이게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은 난민이나 실항민의 부모가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캠프 내 갇히거나 인도주의 활동가로부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의 또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아동 결혼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4배로 증가했습니다. ¹⁴⁵⁾

인신매매범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비보호 아동 난민이나 이주민의 사례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혼자 여행하는 난민과 이주 아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아동이 부도덕한 인신매매범의 손에 의해 성적 학대와 착취에 노출되어 노예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밀수업자와 인신매매범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국경을 넘도록 도와주고, 노예와 강제 매춘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¹⁴⁶⁾

데니스 무케게 박사와 나디아 무라드에게 2018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것은 성폭력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데니스 무케게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수천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의사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전쟁 전략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규탄해 왔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는 2014년 이라크 북부의 야지디족 공동체를 집단 학살 의도로 공격한 이븐바 이슬람국가(IS) 전사들에게 납치되어 반복적인 강간과 학대를 당한 전쟁 범죄의 생존자입니다. 탈출 이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발언했고, 2016년 유엔 최초의 인신매매 생존자 존엄성 친선대사가 되었습니다. ¹⁴⁷⁾

콩고민주공화국과 이라크가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우선순위 국가라는 점을

144) James Landale and Vinnie O'Dowd, "Syria Conflict: Women 'Sexually Exploited in Return for Aid,'" BBC News, 27 February 2018, .

145) Dimitropoulos, "Europe Wasn't Ready for Child Brides."

146) "Traffickers and Smugglers Exploit Record Rise in Unaccompanied Child Refugees," *The Guardian*, 17 May 2017,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7/may/17/traffickers-smugglers-exploit-record-rise-unaccompanied-child-refugees-migrants-unicef-report>.

147) WCC Executive Committe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00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WCC의 공개 성명을 기억하며, 이라크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그 나라에서 소수 종교 공동체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WCC가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합니다.

종교 공동체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피해자 중심적이고 트라우마에 기반한 접근법을 통해 정의, 평화, 자유가 핵심 가치로 옹호되고, 역할 모델이 되고, 지원되는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종종 은폐되는 이 범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와 정교회의 공동 활동인 현대판 노예에 관한 국제 포럼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교회 활동 중 하나입니다.¹⁴⁸⁾

6.3 몇 가지 통찰

위의 섹션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섹슈얼리티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집단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통해 이들에 대한 폭력의 근본 원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별 또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잘못된 기대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여성, 때로는 아동은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용과 쾌락을 위한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기대되는 규범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편협함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범은 기존의 권력 및 특권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옷차림이나 행동 방식,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 성별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거나 뒤집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껏해야 타인이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외면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러한 폭력을 묵인하거나 저지르게 하는 혐오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동을 포함한 타인에 대한 성적 학대나 괴롭힘을 통해 성과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과 수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가치관, 신념, 관행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개인의 신앙에 의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성은 신앙

148) *Church leaders unite their voices against modern slavery.*

<https://www.oikoumene.org/news/church-leaders-unite-their-voices-against-modern-slavery>.

공동체와 더 넓은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강력하고 감정적인 신념의 주제입니다. 많은 교회 환경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시성, 대화, 토론의 부족은 문제를 총체적이고 솔직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는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배제, 억압, 폭력을 영속화하는 사회를 목격하면서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때때로 그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공포와 증오의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가면을 쓰고 살도록 강요하고, 자존감을 파괴하고, 차별, 범죄, 착취, 협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성애 관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반응은 종종 논의를 압도하고 공동체가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들, 즉 가족, 결혼, 교회라는 신성한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학대, 근친상간, 강간과 폭력 등을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성 격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윤리적으로 교회의 통제와 개입 없이는 도덕적 분별 과정을 거칠 능력이 없는 영원한 미성년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면서 이러한 위기를 위로하고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필요성은 로마서 8장 35절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구절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둘러싼 양극화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위치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는 특히 "보수"와 "진보", "종교"와 "세속", 또는 "남"과 "북" 사이의 "문화 전쟁"으로 고의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데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 구체화, 친밀감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앙에 기반한 정치적, 도덕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편리한 도구로 보입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고도로 도구화되어 상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의 일부 종교 단체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적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전통을 고수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독교 교회는 현대 세계의 복잡성과 모호함 속에서 변화하는 종교의 지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선교적 대응을 재조정하고 모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완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은 성찰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는 목소리, 즉 기업의 자기 이익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대화의 파트너이자 국가와 그 법의 '비판적 친구'로 불리기도 하며, 국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토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종종 지배적인 사회적 도덕의 알박함에 도전하며, 국가가 그 자체가 대표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낫도록 변화를 촉구합니다.¹⁴⁹⁾

순례의 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가진 교회들이 동정심과 공감의 환경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드시 수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함께 모여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서로 성찰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며,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인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¹⁵⁰⁾

149) Rowan Williams, *Being Disciples: Essentials of the Christian Life* (London: SPCK, 2014).

150) See also Thomas Best and Günther Gassmann, eds., *On the Way to Fuller Koinonia* (Geneva: WCC Publications, 1994), 232 - 233, para. 20.

7. 교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대화하기

7.1 WCC 내 대화의 역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구성된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WCC는 그 성격과 권위를 정의하고자 노력하면서 1950년 토론토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론토 선언문은 이 협의회가 회원 교회들이 일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위원회는 WCC가 "'초대형 교회'가 아니며, 결코 초대형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초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단일한 세계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조들이 말하는 하나의 성소 (*Una Sancta*)가 아닙니다 공의회는 '권위'는 오직 '그 자체의 지혜로 교회들과 함께 짊어지고 있는 무게'(윌리엄 템플)로만 구성됩니다." 이 성명서는 또한 WCC가 교회 간의 연합을 위한 협상의 장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¹⁵¹⁾

그러므로 WCC는 공동의 행동을 취하고 회원 교회들의 삶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회원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WCC는 이 주제에 대한 숙의와 공동 행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교회는 과거나 미래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모든 시대에서 그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3년 부산 총회는 1961년 뉴델리 총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진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을 WCC에 요청했습니다.¹⁵²⁾ 이미 1961년 이 총회에서는 결혼 전후의 성관계, 불법, 일부다처제, 단기 결혼, 쉬운 이혼 문제를 세계 여러 지역의 급변하는 도덕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었습니다.

151) For the Toronto Statement, see *The Ecumenical Movement: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ed. Michael Kinnamon and Brian E. Cope (Geneva: WCC Publications, 1997), 463-68.

152) See "Background Document on Churches' Response to Human Sexuality,"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assembly/2006-porto-alegre/3-preparatory-and-background-documents/churches-response-to-human-sexuality>.

인공 피임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1968년 옴살라 총회에서는 일부다처제, 독신주의, 피임, 이혼, 낙태,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돕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974년 베를린에서 "1970년대의 성차별"이라는 제목의 주요 협의가 열렸습니다.¹⁵³⁾

1975년 나이로비 총회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모색했고, 밴쿠버(1983년)와 캔버라(1991년) 총회는 이전 총회와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생명공학에 대한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캔버라 총회 이후에는 동성애 문제가 점차 중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찰이 WCC의 '가정생활과 교육' 부서에서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 부서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1998년 하라레 총회에서 많은 교회와 주최 정부가 인권적 접근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렌즈는 인권의 렌즈였습니다. 그 총회에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총회 프로그램 자체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토론 장소이자 공간인 파다레에서 일련의 발표를 통해 민감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하라레 총회가 끝난 후, 그 초점은 더 넓어졌고, 총무는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을 임명하여 그에게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WCC는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라레 총회 이전에는 동성애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이를 인간의 섹슈얼리티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검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회들 간에 대화를 나누고 성찰과 지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회원 교회들이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발표한 모든 성명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무가 교회들에게 요청한 것은 그 결과를 협의회와 공유하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명을 작성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보세이 에큐메니칼 연구소에서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복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구 토론 과정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적 사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HIV와 에이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153) *Sexism in the 1970s: A Report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WCC Publications, 1975).

WCC의 활동도 이 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를 앞두고 WCC는 신앙과 직제 위원회를 통해 신학적 인류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¹⁵⁴⁾ 총회 이후, 신앙과 직제 위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추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 분별'은 다양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어떻게 도덕적 입장을 분별하게 되는지 탐구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¹⁵⁵⁾

2009년 우간다의 반동성애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WCC의 메시지는 WCC가 정부와 다른 기관을 상대로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¹⁵⁶⁾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와 공동체의 일부이며, 이들은 사회의 복지와 총만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WCC 회원 교회들의 교제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화의 일부입니다. 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 특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찾기 위해 고민해 왔으며, WCC 회원 교회들은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이 문제로 인해 도전받는 교회들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 서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하라레 총회 이후 수행된 작업에 따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어느 한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¹⁵⁷⁾

154) *Christian Perspectives on Theological Anthropology*, Faith and Order Paper No. 199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christian-perspectives-on-theological-anthropology>.

155) *Moral Discernment in the Churches*, Faith and Order Paper No. 215 (Geneva: WCC Publications, 2013),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ommissions/faith-and-order/i-unity-the-church-and-its-mission/moral-discernment-in-the-churches-a-study-document>.

156) Rev Dr Samuel Kobia, WCC General Secretary, Letter to the President of Uganda, Mr Yoweri Kaguta Museveni, raising concerns regarding the Anti Homosexuality Bill, 22 December 2009,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general-secretary/messages-and-letters/letter-to-the-uganda-president.html>.

157) See "Background Document."

많은 사람들은 WCC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참가자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보세이 세미나는 적극적이고 존중하는 경청의 장을 제공했으며, 이는 다른 곳에서도 모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결국 대화는 대화와 상호 교류의 과정이며, 함께 의논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사랑, 존중, 관심의 태도로 마주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이해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다수의 섹슈얼리티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행과 가르침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르침과 관행의 이면에 있는 이유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 총회는 또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라는 중요한 주제 아래 협의회의 활동을 배치했습니다. WCC의 전략적 목표와 이에 따른 순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들의 교제 강화, 영성, 신학적 성찰, 양성에서 서로의 참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신뢰와 이해의 관계 구축,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를 위해 함께 하는 영감과 혁신적인 일의 소통.

최근 신앙과 직제 문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순례자들은 함께 이동하며 여정의 도전에 직면하는 동안 예기치 않게 거룩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될 수 있다."¹⁵⁸⁾ 따라서 WCC는 '지금'과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분별하는 공간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이러한 대화는 에베소 서신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엡 4:2) 관용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7.2 WCC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사이의 대화

많은 교회와 기독교구성원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중 어떤 핵심 자원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원 자체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특히

158) Introduction, *Come and See: A Theological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Faith and Order Paper No. 224 (Geneva: WCC Publications, 2017), 9, para. 2.

교회가 삶과 사역을 수행하는 새로운 맥락에 직면하려고 노력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은 종종 사회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여성과 성 소수자의 지위와 해방과 같은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대성의 양립 가능성, 여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 및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인정,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됩니다. 대화는 또한 근대성이 자율성, 주체성, 해방에 대한 견해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현재의 성 행동, 신념, 정체성, 규범 및 라이프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형성했는지를 탐구하고 질문합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성적 다양성에 대한 거부는 현대의 자율성, 주체성, 해방에 대한 반작용이 되었으며, 이것이 현재의 성 행동, 태도, 신념, 정체성, 규범, 라이프스타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형성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교회 간 관계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에큐메니칼 관계에서 감정적 논쟁과 논쟁을 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에서 실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로, 그리고 불행히도, 또 불필요하게도 고도로 정치화된 문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교회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교단은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사회적 태도의 자유화에 반대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전통적 또는 자유주의적 종교 정체성을 옹호하고 확증하기 위해 선택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간에도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와 교회 간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교회 그룹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은 회원 교회, 국가 및 지역 교회 협의회, 기독교 세계 공의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WCC 회원 교회들도 국가 및 지역 교회 협의회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4개의 신학대학과 신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교회, 협의회, 친교 단체의 접근 방식을 모두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원과 회원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제시된 사례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7.2.1 회원 교회들

전 세계 WCC 회원 교회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합니다. 아래의 교회들은 서로 다른 대륙과 신학적 전통에서 왔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왔으며,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각기 다른 정책과 의사 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나 위계적 헌법에서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의존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법원이나 지방회 시스템을 통해 토론하고 논의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시대와 장소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필리핀그리스도연합교회(UCCP)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HIV에 대한 취약성에 관한 공개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침묵을 깨는 데 기여했습니다. 폭넓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긍정하고, 환영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UCCP의 슬로건인 LGBT는 "모두를 위한 은혜가 되게 하자Let Grace Be Total"의 약어입니다.

성공회 남부 아프리카 교회(ACSA). 2016년 9월 지방 시노드(synod)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타보 막고바 대주교가 이 문제를 제기하여 2017년 2월 주교들의 시노드에 상정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주교 인간 섹슈얼리티 위원회(ABCHS)가 2017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끄는 것은 과거에 교구에서 논쟁적인 문제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논쟁은 분열의 지점이 아니라 다양성을 축하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막고바 대주교는 2015년 2월 25일 광고 라오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결심하고 있는 한 가지는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가 우리의 차이로 인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거부해온 역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함께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제재와 여성 안수에 대한 깊은 차이를 극복했고,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¹⁵⁹⁾

따라서 위원회는 "함께 가는 여정"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풀뿌리 본당 수준에서 지방의 사람들이 대화, 즉 다양한 형태의 '타자'를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대화에 참여하여 성령께서 이 시대와 공간에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지방 총회가 다시 모일 때, 위원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동의안 형식으로 보고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ACSA 주 로드쇼(Provincial Roadshow)를 준비하여 주 전역의 최소 8개 센터에서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위원회가 남부 아프리카 전역의 각 교구 주민들의 우려와 도전, 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본당과 교회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대화는 교구 레퍼런스 그룹(각 교구의 주교가 구성)이 워크시트, 성경 공부, 독서 및 연구 자료, 교구 보조 자료 등 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자료로 조직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교회도 지난 60년 동안 인간의 섹슈얼리티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 학대, 특히 동방 유럽 출신의 성 노동자 인신매매, 가정 폭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엄격한 보호 절차, 보고 및 징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위기 및 상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1957년 영국 정부는 21세 이상의 동의하는 성인 간의 사적인 동성애 활동을 탈-범죄화할 것을 권고하는 볼펜덴 보고서를 받았고, 196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관련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980년에야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총회는 1967년, 1968년, 1983년에 이 문제를

159) Archbishop Thabo Makgoba, *To the Laos-To the People of God, Lent 2016*, <https://archbishop.anglicanchurchsa.org/2016/02/to-laos-to-people-of-god-lent-2016.html>.

다루었습니다.

2007년에는 '단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졌습니다.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에 대한 분석과 개혁주의 전통의 통찰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이 보고서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현대의 도전을 확인하고 의학자들과는 상반된 통찰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회가 동성애 사랑과 활동에 대한 분별을 계속 추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분의 영 안에서 함께 묶여 있고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어 2009년에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독신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학적 프리즘, 즉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라는 프리즘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동성애 정체성과 행동을 둘러싼 문제는 다시 총회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수행한 작업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성애자 또는 레즈비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교회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초교파적 조사와 함께 위원회는 특히 유전학과 관련된 주요 의학 과학자들의 논문을 의뢰했습니다. 또한 모든 커크 당회와 노회에 설문지를 보내 교회 전체의 토론을 촉진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 및 레즈비언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간증도 청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동성애 커플을 포함하는 용어를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과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성애가 안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회에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신학위원회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학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하고, 동성애 논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주석했으며, 성경, 에큐메니칼 문서 및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탐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목회자와 교회의 양심적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에 적합한 교회법의 틀을 제시하여 동성애자 목회자의 신청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트너가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 목회자는 시민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성 파트너십을 축복하는 예식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과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총회는 분열적인 논쟁에 참여하여 교회가 시민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게이 또는 레즈비언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교회의 전통적 관점을 규범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그 후 2017년 신학 포럼은 성경 해석, 결혼의 발전, 인권의 논증, 동성 결혼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신학적 논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동성 결혼 신학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신학 포럼과 교회는 교회의 근본 교리를 지키면서 교회 전체의 전통 안에서 허용 가능한 이견의 영역을 모색하는 '제한된 차이'의 제약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총회는 목사가 원할 경우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결혼 또는 축복 예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전례를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¹⁶⁰⁾

이러한 결정과 과정의 결과로,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2018년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장을 총회에 초청하는 관행을 계속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교회 및 연합개혁교회와의 역사적 연대를 느슨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¹⁶¹⁾ 또한 같은 총회에서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세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¹⁶²⁾

아르헨티나 복음주의 감리교회. 2010년 아르헨티나 국회는 동성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이성애자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160) For the named reports, see

https://churchofscotland.org.uk/__data/assets/pdf_file/0004/70375/church-of-scotland-general-assembly-2016-volume-iii.pdf

161) The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withdrew from membership of the WCC in 1980 over the Programme to Combat Racism, and its promotion of interfaith dialogue (as, for example, in the Ajaltoun Consultation).

162) Presbyterian Church in Ireland, *Church of Scotland and URC-Statement*, 6 June 2018, <https://www.presbyterianireland.org/News/2018-News-Archive/June-2018/Church-of-Scotland-and-URC-Statement.aspx>.

동등하게 한 이 국가 법안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논쟁과 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 감리교회와 다른 유사 깊은 개신교 교회들은 새로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동의했으며, 특히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고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운영위원회는 모든 교회에 몇 가지 기준과 권고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에는 동성 커플이 시민 의식 결혼 후 축복 의식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 교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결정은 지구 감리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25차 총회(2015)에서는 2010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2년 후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아르헨티나의 여러 지역에서 온 안수받은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들은 동성 커플을 위한 결혼 축복식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로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성 평등, 가부장제, 성적 다양성 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신학, 의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서면 기고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야와 관련하여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연구 위원회는 2019년 10월 총회에 합의 문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¹⁶³⁾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연합교회(UCC)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완전한 포용을 향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된 여러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⁶⁴⁾

163) This report has been received from Pastor Maximiliano A. Heusser, coordinator of the study group on sexuality and gender, translated by Alexandre Pupo.

164) Although the church uses the LGBTQI2+ acronym, it initially focused on sexual identity (homosexuality)-Lesbian, Gay, and Bisexual. In the last few years, the church has turned its attention to issues of gender identity-transgender, and with the church's commitment to living in right relations with indigenous peoples, work is being engaged on two-spirit identity (2+) which is the indigenous terminology for its LGBQ community.

캐나다연합교회가 캐나다의 사회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참여한 역사는 중요합니다.

연합교회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또한 교회가 문제와 투쟁하는 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1988년, 신학과 신앙 위원회는 '성경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말한다"라는 문구를 읽거나 듣거나 말할 때, 우리는 해석, 즉 한 독자나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특정 해석자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얽히게 됩니다. 권위가 뒤섞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권력과 권위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각자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투표한다는 사실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연합교회에서는 총회의 결정이 교회의 정책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개인이 그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한 승인을 확인했을 때 총회는 결혼은 예배 행위이며 지역 교회 평의회의 책임하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동성 결혼에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교회에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동성 결혼을 수용하기 위해 결혼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총회의 결정은 대부분의 교회가 결혼에 대한 이해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힘과 도덕적 틀 안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교회의 분별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정부 정책과 법률이 LGBTQI2+의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며,¹⁶⁵⁾ 정부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가 LGBTQI2+를 포용하기 위한 여정은 3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자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활동 중인 목회자 중 3분의 1 이상(2,500명)이 스스로를 LGBTQI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5)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Questioning, 2 Spirit Identity (indigenous peoples' expression for LGBT). See <https://www.united-church.ca/social-action/justice-initiatives/sponsoring-lgbtqi2-refugee>.

오늘날 교회는 포용을 위한 노력으로 게이, 레즈비언, 성전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는 다른 교파의 목회자/성직자 및 평신도들을 환영합니다.

그 여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988년 이전에는 캐나다연합교회는 동성 관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에 게이와 레즈비언 회원을 위한 지원 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Affirm(유나이티드)'. 2년 후 '긍정의 친구들'이 만들어져 연구 문서를 작성하고 교회 내 옹호 단체가 되어 교회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1988년 총회는 성적 지향, 교회 회원, 교회 리더십에 관한 두 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섹슈얼리티에 관계없이 캐나다연합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캐나다연합교회의 모든 회원은 안수 받은 사역을 고려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¹⁶⁶⁾

1994년, 캐나다연합교회와 캐나다연합교회의 친구들은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에 비추어 연구하고 분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교회의 사역을 통합하고 초대했습니다. 이는 이후 교회에 새로운 정신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연합교회는 연방정부가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시민 결혼을 시행하는 데 동참해 왔습니다.

2009년에 총회는 캐나다연합교회 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참여와 사역을 확인하고 모든 교회가 트랜스젠더의 회원 가입, 사역, 완전한 참여를 환영하도록 장려했습니다. 2012년 협의회 집행부는 성 정체성(한 사람이 남성, 여성, 둘 다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선천적으로 깊이 느끼는 감각)과 성적 지향(정서적, 육체적으로 끌리는 성별과 관련됨)의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이후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을 안수하고 최초의 게이 의장(moderator)과 최초의 레즈비언 의장(moderator)을 선출했습니다.¹⁶⁷⁾

166) The United Church of Canada,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p.30, <https://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full-inclusion.pdf>.

167) United Church of Canada, *A Timeline of LGBTQIA+ and Two-Spirit Justice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ttps://united-church.ca/sites/default/files/lgbtqia-two-spirit-timeline.pdf>

7.2.2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대화와 가르침

로마 가톨릭교회는 WCC의 회원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과 직제 위원회와 세계 선교 및 전도 위원회의 회원이며, 국제 문제 교회 위원회와 정의와 평화 순례 레퍼런스 그룹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옵저버로서 WCC의 삶과 사역의 다른 측면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가장 최근에는 주교 시노드(2015년)와 어린이 보호에 관한 특별 정상회의(2019년 2월)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이 문서 초안 작성을 위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에 로마 가톨릭교회 대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공개 영역의 문서, 특히 아모리스 라티티아(*Amoris Laetitia*) 회칙과 특별 정상회의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통해 배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심의와 교회들의 폭넓은 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¹⁶⁸⁾

시노드 이후 사도 권고 「아모리스 라티티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족, 결혼, 사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도적 권고는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의 협의 기간이 끝난 후 발표되었습니다. 리나멘타(준비 문서)는 전 세계 주교들과 주교회에 발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교회가 걸어온 여정을 광범위하게 상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교들은 교인들과 상담하도록 초대되어 결혼과 가정에 관한 46개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주교들은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2015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시노드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성서적, 영적 성찰을 거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랑에는 항상 깊은 연민의 측면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에도 이 세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¹⁶⁹⁾ 교황은 결혼 성소의 성공에 필요한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미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스 라티티아는 자비와 사회 주변부로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168) This section was drafted by members of the Reference Group on Human Sexuality and was then passed to a Roman Catholic scholar to ensure that the section did not misrepresent his church. His helpful comments were then incorporated into this section.

169)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성적으로 학대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대응을 위해 고심하면서 자연법, 신법, 교회법, 성전, 성서에 근거하여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¹⁷⁰⁾ 하나님께서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소명에는 "사랑과 친교의 능력과 책임"이 포함된다.¹⁷¹⁾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¹⁷²⁾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도덕적, 영적 차이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 생활의 선을 지향하고 상호 보완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지만,¹⁷³⁾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들을 존중과 연민, 감수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모든 징후는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처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¹⁷⁴⁾

성직자의 성적 학대에 대해 많은 주교회의는 이러한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보호 절차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2011년 바티칸은 성직자 성학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 교황청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아모리스 라티티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말을 인용합니다:

섹슈얼리티는 만족이나 오락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성하고 불가침한 존엄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대인 관계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말하자면 또 다른 종류의 자발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로틱한 표출은 섹슈얼리티의 구체적인 인간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몸의 혼인성례적 의미와 은총의 진정한 진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¹⁷⁵⁾

성직자, 수도자, 주교, 추기경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의 편에

170)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ondon: Bloomsbury, 2002), no. 2332.

171) *Catechism*, no. 2331.

172) *Catechism*, no. 2333.

173) *Catechism*, no. 2357.

174) *Catechism*, no. 2358.

175) *Amoris Laetitia*, para. 151.

서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는 데 공모한 성추문이 계속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로마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가톨릭 지도자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티칸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명확한 지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수립된 8가지 '모범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흠 잡을 데 없는 진지함, 진정한 정화, 주교회의의 지침 형성, 강화 및 검토, 학대받은 사람들과의 동행, 디지털 세계와 성 상품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그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조치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학대도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황은 아동을 보호할 때 디지털 세계를 통해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문제를 모든 대륙에 널리 퍼진 문제로 보고 가톨릭 공동체의 사목자들이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태도로 이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를 원했습니다.¹⁷⁶⁾ 2019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스 에스티스 렉스 문디 *Vos Estis Lux Mundi*'라는 제목의 사도 교서(*Motu Proprio*) 형식의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성적 학대 범죄는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영적 피해를 입히고 신자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지속적이고 심오한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서한은 주로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사람과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 배포 또는 소지하는 행위 등 성직자와 수도회 회원들의 학대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또는 정식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행위도 비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회의가 1년 이내에 공개적이고 안정적이며 접근

176) See Cruxnow coverage of the February 2019 abuse summit: "Pope's End to Anti-Abuse Summit Sunday Disappoints Survivors," 24 February 2019, <https://cruxnow.com/february-abuse-summit/2019/02/popes-end-to-anti-abuse-summit-sunday-disappoints-survivors/>. 177. See Pope Francis, *Vos estis lux mundi*, 7 May 2019,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190507_vos-estis-lux-mundi.html

가능한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고 환영하고 경청하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침묵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신고 행위가 업무상 기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투 프로프리오(The *Motu Proprio*)는 성추행 혐의를 받거나 그러한 성추행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을 보고하지 않은 주교 및 기타 성직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 모투 프로프리오에서 제정된 규범은 3년의 실험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입니다.¹⁷⁷⁾

7.2.3 기독교 세계 공동체들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킵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기독교 세계 공동의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성공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성공회의 여러 지방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동성애 포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1998년 램버스 회의 전까지 전 세계 차원에서 공식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교 회의의 4개 분과 중 한 분과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분과에서는 일주일 동안 구조화된 형식에 따라 토론을 진행했고, 이 주제에 대한 네 가지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의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지도부는 다른 생각을 했고, 결국 결의안이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습니다. 여러 주교들의 열정적인 연설과 수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결의안 1.10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동성애 행위는 성경과 양립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목회적으로 섬세하게 대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¹⁷⁷⁾ Lambeth Conference, Section 1.10.e., <http://www.anglicancommunion.org/resources/document-library/lambeth-conference/1998/section-i-called-to-full-humanity/section-i10-human-sexuality?author=Lambeth+Conference>.

비이성적인 두려움, 결혼 내 폭력, 성의 사소화 및 상업화를 규탄할 것"을 요청했지만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거나 축복하거나 동성 결합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권고할 수 없다"¹⁷⁸⁾ 고 밝혔습니다.

람버스 회의 이전에도 북미와 영국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많은 주교들이 그들의 우려를 람버스 회의에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에서 온 두 번째 나팔'은 "우리는 우리 시대의 동성애, 강간, 아동 학대를 포함한 섹슈얼리티의 재앙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목회적 문제이며,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끔찍한 비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목회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¹⁷⁹⁾

람버스 1.10 결의안 통과에 대한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 성공회 신자들은 분노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결의안이 "성공회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했고, 사실 람버스 총회의 결의안은 상당한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각 지방이 직접 채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해 여름 사건의 여파로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는 성공회 전역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국제 대화"를 열었습니다. 3년 후 그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대화를 위해 수립한 '언약'을 공유했습니다. 이 언약은 성공회가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언약의 약속 중 일부:

4.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유연하게 이해합니다.
5. 우리는 모든 관점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78) Lambeth Conference, Section 1.10.e., <http://www.anglicancommunion.org/resources/document-library/lambeth-conference/1998/section-i-called-to-full-humanity/section-i10-human-sexuality?author=Lambeth+Conference>.

179) *Second Trumpet from 2nd Anglican Encounter in the South*, Kuala Lumpur, 10-15 February 1997 section 6.5.

그 결과, 그룹이 함께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석적 사랑interpretive charity'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동료와 다른 친교 회원들에게 최선의 의도를 전가하고, 그들에 대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능하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¹⁸⁰⁾ https://www.anglicancommunion.org/media/189015/conversations_on_human_sexuality.pdf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는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지방에서 온 성공회 신자들을 모으는 방법론을 이어갔습니다. 2003~2004년에 모여 원저 보고서를 작성한 램버스 성찬성사 위원회는 성공회 내 동성애자 파트너의 주교 서품과 캐나다의 한 교구에서 동성 결합을 축복하는 전례의 승인에 비추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성찬을 보장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램버스 회의는 이전 회의의 준-의회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주교들은 토론을 위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실무 그룹 대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인다바Indaba' 그룹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당수의 주교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참석한 주교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큰 대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글로벌사우쓰회의에서 일어난 기세에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가 열렸고, 그곳에서 the GAFCON이 탄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램버스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체 설명에 따르면

2008년 성공회 일부에서 도덕적 타협, 교리적 오류, 성경적 증거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전 세계 대다수 성공회 지도자들이 진리를 위해 단합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GAFCON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세계 성공회 미래 회의(GAFCON)에는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 등 천여 명이 넘는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¹⁸¹⁾

180) *Final Report from the International Anglican Conversations on Human Sexuality*, March 2005, 6, http://www.anglicancommunion.org/media/189015/conversations_on_human_sexuality.pdf.

181) About GAFCON, <https://www.gafcon.org/about>.

일부 주교들은 GAFCON과 램버스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일부 주교들은 이미 자신의 관구를 떠나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동했고, 다른 주교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2008년 램버스 연차대회 이후, "지속적 인다바" 과정이 수립되어 성공회 전역의 주교, 성직자, 평신도 그룹이 모였습니다.¹⁸²⁾ 이 과정이 마무리된 2016년, 진행자들은 "살아있는 화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¹⁸³⁾

또한 캐나다 성공회의 주도로 캐나다와 아프리카 주교들을 위한 의도적인 구조화된 대화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고, 그 과정에서 우정을 쌓고 섹슈얼리티와 같은 민감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대화하는 주교들' 모임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교회와 다른 여러 지방에서도 격렬한 구조화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램버스 이후 수년 동안의 주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성별, 권력,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차이를 가진 지도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생각과 기도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친교의 유대'가 강화되고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성공회 신자로서 함께 속해 있다는 합의는 훨씬 더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¹⁸⁴⁾

루터교 세계 연맹. 2003년 위니펙에서 열린 루터교세계연맹 총회에서 스웨덴 교회가 동성애의 인권적 차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면서 동성애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¹⁸⁵⁾ 이 문제와 관련된 긴장과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182) *Report of the Listening Process on Human Sexuality*, The 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XVIII Nottingham, 2005, http://www.anglicancommunion.org/media/39805/listening_process-.pdf.

183) Phil Groves and Angharad Parry Jones, *Living Reconciliation* (London: SPCK Publishing, 2014).

184) We are grateful to Canon Rev Dr Alyson Barnett-Cowan for her help with this section.

185) For a history of the engagement of the LWF on this issue, see *Family, Marriage and Sexuality*, Lutheran World Federation, <https://www.lutheranworld.org/family-marriage-and-sexuality>.

문제에 대한 대화에 관심이 낮았지만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습니다.¹⁸⁶⁾ 이 태스크포스팀은 2007년 룬드에서 열린 LWF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여져 회원 교회와 연맹 내에서 5년간의 대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¹⁸⁷⁾

그러나 스웨덴 교회가 결혼의 정의를 동성 커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 Mekane Yesus(세계에서 가장 큰 루터교회)는 동성 결혼의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및 스웨덴 교회와의 교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¹⁸⁸⁾ 루터교 세계연맹 평의회 회의에서 이러한 친교의 균열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여러 유럽 회원 교회들이 스웨덴 교회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고,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교회인 메카네 예수 교회만이 이러한 입장에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 복음주의 교회, 라트비아 복음주의 루터교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실레지아 복음주의 교회도 비판적이었지만 ELCA 및 스웨덴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습니다.

2012년 보고타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격렬한 대화가 오갔고, 그 결과 대다수가 지속적인 논의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회자와 총무는 대화의 경험을 요약하면서 각 회원 교회의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는 존중하고 품위 있는 대화가 가능했으며, 연맹이 가족, 결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친교로서의 루터교 세계연맹의 여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원 교회들 사이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루터교 세계연맹 연맹의

186) "A Chronological Compilation of Key Official LWF Discussions and Decisions on Family, Marriage and Sexuality, 1995-2013," Lutheran World Federation, https://www.lutheranworld.org/sites/default/files/LWF-Emmaus_chronological_compilation1995-2013.pdf.

187) "Task Force Report and Proposed Guidelines and Processes for Respectful Dialogue?," Agenda Exhibit 10 Meeting of the LWF Council, Lund - Sweden, 20 to 27 March, 2007, <https://www.lutheranworld.org/sites/default/files/Exhibit%2010%20Report%20Task%20Force%20English.pdf>.

188) "Church of Sweden Barred from Ethiopian Summit," *The Local*, 27 April 2007, <https://www.thelocal.se/20070427/7133>.

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루터교 세계 연맹의 총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교회들의 친교로서 우리는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들, 즉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같은 문제들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견해의 다양성과 우리 사이의 일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기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더 잘 논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찬예배와 기도의 힘에 의지할 것이다.¹⁸⁹⁾

메노나이트 세계대회. 1925년에 설립된 메노나이트 세계대회(MWC)는 107개 국가 아나뱃티스트 관련 교회에 분포된 약 10,000개의 지역 교회가 모이는데, 이 중 3개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입니다.¹⁹⁰⁾ 지금까지 MWC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2006년에 MWC는 "공유된 신념"이라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신념 중 네 번째 신념은 모든 신학적 성찰과 이해의 기초로서 성경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에 대한 우리의 권위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해석하여 우리의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¹⁹¹⁾

동시에 MWC는 회원 교회들의 신앙고백과 교회적 실천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공유된 신념"을 넘어, MWC는 회원 교회들에게 하나의 신앙고백이나 실천을 옹호하지 않으며, 대신 회원 그룹들이 신앙과 삶의 문제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MWC 회원 교회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회원 교회들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동성 결혼에 관한 질문을 더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189) Correspondence between LWF General Secretary Martin Junge and Archbishop Anders Wejryd. The General Secretary was citing *A Chronological Compilation of LWF strategy* agreed in June 2011.

190) The 3 members of the WCC are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ermany, and the Netherlands.

191) "Shared Convictions of Global Anabaptists," adopted by Mennonite World Conference General Council, 15 March 2006, <https://mwc-cmm.org/shared-convictions>.

-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는 '메노나이트 관점에서 본 신앙고백 (1995)'¹⁹²⁾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은 섹슈얼리티, 동반자 관계, 출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19조). 이 조항은 2001년 MCUSA가 결성된 이후 많은 논의와 논쟁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2013년부터 몇몇 지역 연회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거나 동성 결혼을 한 지역 교회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메노나이트 관점의 신앙고백의 권위에 대한 MCUSA의 계속되는 논쟁은 다른 연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만들었습니다.
- 2016년 7월 총회에서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는 동성 간의 헌신적인 관계에 관한 분별 과정을 확립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테스크포스팀'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헌신적인 동성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러한 대안적 이해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 2016년에 MWC 웹사이트에는 스위스 무텐츠에 있는 에반젤리쉬 메노니텐게마인데 쉐츨리의 에마누엘 노이펠트(Emanuel Neufeld)가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공동체 성경 공부 과정을 설명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¹⁹³⁾ 그러나 스위스 메노나이트 연회 전체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이 주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파라과이의 메노나이트 형제교회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교회는 전통적인 남성/여성 성 정체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MWC 회원 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학대를 비난하지만, 대다수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전통적인 이해라는 점을 긍정하며 2019년까지 이 주제를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개척교회커뮤니언(WCRC). 2010년¹⁹⁴⁾에 설립된 세계개척교회커뮤니언은

192) *Confession of Faith in a Mennonite Perspective*, Mennonite Church USA (Elkhart, Ind.: Herald Press, 1995).

193) Emmanuel Neufeld, "How Can We Get Answers from the Bible for 21st-Century Questions," *Mennonite World Conference Courier*, 16 May 2017, <https://mwc-cmm.org/hi/node/488>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차이로 인해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갈등과 분열, 관계의 파열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총회에서 성공회는 인간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의 WCRC 행동 56:

1. 신학적 견해와 상관없이 전 세계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
2. 침묵을 통해 폭력을 지지하는 데 공모했었음을 고백한다.
3.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정의와 자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9차 총회(총회)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은 성경 연구와 개혁주의 전통의 통찰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보호하며 상호 도전과 책임감, 은혜가 논의의 바탕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계개독교교회커뮤니언은 라이프치히 권고의 후속 조치로 첸나이에서 "친교 강화"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약속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는 전체 친교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방 정교회The Eastern Orthodox churches.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는 모든 동방 정교회에 정교회 공의회 개최를 촉구하고 논의할 의제를 작성하도록 교회들을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961년 그리스 로도스에서 열린 첫 번째 범정교회 회의에서는 긴 의제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의제를 진행하기 위해 스위스 상베시에 사무국이 설립되었고 1976년 10가지 주제에 합의했습니다. 준비 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지역 교회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문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국이 이 문서들을 편집하고, 사전 회의를 통해 논의와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교회의 총회에

194)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as formed by the coming together of the World Alliance of the Reformed Churches and the Reformed Ecumenical Council at the Uniting Assembly at Grand Rapids, Michigan, USA, in 2010. Se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t <http://wcrc.ch>.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교회 교부들의 저술을 통해 성경과 전통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유럽의 상황 변화로 인해 공의회는 이 단계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소집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르자 일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준비 문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 대표들과 함께 준비 위원회가 몇 차례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한 후, 2016년 1월에 모든 원시인들이 상베시에 모여 문안을 검토했고, 승인을 위해 대공의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6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크레타섬에서 대공의회가 열렸지만 4개 지역 교회(안디옥, 불가리아, 조지아, 러시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중 두 개는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성사와 그 장애물'이라는 문서는 세속화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 가족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¹⁹⁵⁾ 오늘날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가족 중심인 결혼이며, 가족은 결혼을 정당화하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동거를 인정하라는 압력은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결혼은 성사적 성격이 부족합니다. 이 문서는 계속해서 "교회는 교인들이 결혼 외에 동성 결합이나 다른 형태의 동거를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서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포함하는 신성한 것이며,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동시에 제정된 신성한 법 안에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가분한 결합의 신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일치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가족은 그 자체가 작은 교회입니다. 간접적으로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공의회는 미샤 체르니악이 기독교 성소수자 단체를 대표하여 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소수자 신자들의 상황과 공동체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본당에서 쫓겨나거나 성찬식을 거부당하거나 전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서한은 지역 교회에 이러한 폭력과 공격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모든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195) "The Sacrament of Marriage and Its Impediments," *Official Documents of the Holy and Great Council of the Orthodox Church*, June 2016, <https://www.holycouncil.org/marriage>.

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교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존중과 신뢰의 정신으로 자신의 의견, 경험, 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¹⁹⁶⁾

이번 공의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두 번째 문서인 "오늘날 세계에서 정교회 사명"에는 "차별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관한 장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정교회는 피부색, 종교, 인종, 성별, 민족,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고백한다"고 확인합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정교회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한 차별을 거부하는데, 이는 사람들 간의 존엄성 차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신학자들과 일부 특정 지역 교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동성애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¹⁹⁷⁾ 공의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규탄했습니다.

오리엔탈 정교회The Oriental Orthodox churches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인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에리트리아 정교회가 포함된 오리엔탈 정교회 계열은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오리엔탈 정교회는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처럼 이슬람이 지배적인 종교이고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종교적 소수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도에서 제안된 정부 법안에 대해 인도 정교회(말란카라 시리아 정교회)와 동방 가톨릭의 인도 정교회 델리 교구에서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교구 모두 동성애와 관련한 법 개정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란카라 정교회 시노드 도덕 및 윤리 문제 위원회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하나님은 모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바라보신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여 동성애는

196) Full text in *For I Am Wonderfully Made*, ed. Misha Cherniak, Olga Gerassimenko, and Michael Brinkschroder (Esuberanza: European Forum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hristian Groups, 2016), 298-301.

197) See the articles in *The Wheel* 13/14 (Spring/Summer 2018) by Metropolitan Timothy Ware and Professor Andrew Louth, among others. They open up discussion of homosexuality from the writings of the Fathers and the liturgies of the church, and they plead for the church to cease being silent on these issues and open a dialogue on them.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최악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인도 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출생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호소는 공공질서, 도덕, 건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위원회는 모든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합의된 행위와 합의되지 않은 행위를 법으로 구분하고 합의된 행위는 탈-범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¹⁹⁸⁾ 인도 정교회 소속 델리의 고 조브 마르 필록세노스 대주교는 2009년 같은 법 개정해 대해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은 인류 세대의 지속을 위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므로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인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¹⁹⁹⁾

오리엔탈 정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거나 참여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오리엔탈 정교회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분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²⁰⁰⁾

기독교 세계 공교회 총무들 General secretaries of Christian world communions. 기독교 세계 커뮤니언 총무들의 비공식 회의는 매년 총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의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세계성공회와 회원 교회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2016년 회의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세계성공회 회원 교회 안팎의 교회 교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 세션에서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²⁰¹⁾

7.2.4 국가 교회 협의회 National Councils of Churches

기독교 세계 공의회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회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8) The Indian Orthodox Church Synodical Commission for Moral and Ethical Issues Response on Unnatural Offenses-Section 377 of the Indian Penal Code, 23 December 2013.

199) Metropolitan Job Mar Philoxenos, "Indian Orthodox Church Believes Homosexuality a Crime," 3 July 2009.

200) Geevarghese Mor Coorilos, "Orthodoxy and Sexuality: Reflections on the Doctrine of God and Anthropology," in *Theological Reader on Human Sexuality and Gender Diversities: Envisioning Inclusivity*, ed. Roger Gaikwad and Thomas Ninan (NCCI/SPCK, 2017): 112-20. See also Reji Mathew, "A Biblical and a Theological Critique of Select Ecclesial Fathers," in *Theological Reader*, 65-79.

201)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Russian Orthodox Church (alongside the Ecumenical Patriarchate) are members of this body.

많은 회원 교회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협의회는 서로 다른 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공유하며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다양한 대륙의 교회협의회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도 교회 협의회. 개신교와 정교회 전통의 30개 교회로 구성된 인도 전국교회협의회(NCCI)는 2001년과 2003년에 두 개의 "연구기관"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WCC의 정의, 평화, 창조 위원회를 통해, 그리고 2015년부터는 HIV와 에이즈를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ESHA)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차원에서 회원 교회들을 참여시켜 인간의 성슈얼리티와 성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²⁰²⁾ 회원 교회들 간의 큰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NCCI는 일관되게 예언자적 입장을 견지하고, 프로그램과 문헌, 주요 성명서를 통해 네트워크에 도전하며, 섹슈얼리티로 인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네트워크를 위한 실행 가능한 대화와 학습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정의 주요 이정표로는 HIV와 에이즈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 인도 교회를 위한 안내서 (2009)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에큐메니칼 문서 (2010)가 있습니다.²⁰³⁾ 후자는 정의, 평화, 창조 위원회가 회원 교회들과 주요 영향을 받는 사람들(KAP) 간의 2년간의 연구와 대화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2012년 방갈로르에서 열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에서 위원회는 성 및 섹슈얼리티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포럼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고, 2014년 11월 국가 차원에서 이 공동체에 다가간 최초의 기독교 이니셔티브인 성 및 성 다양성 에큐메니컬 포럼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2016년 4월 자발푸르에서 열린 이 포럼의 사전 모임에서는 "포용적인 무지개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심의하고 2016년 NCCI 사년 총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202) See "Background of ESHA Programme," ESHA, <https://www.eshancci.org/about-us-2/>.

203) *Policy on HIV and AIDS: A Guide to Churches in Indi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2009, available from <https://ncci1914.com/policies/> ; An Ecumenical Document on Human Sexuality, adopted by Resolution #EC: 2010.28(9) of the Honorable Executive Committee of the NCCI, 16 September 2010, <http://ncci1914.com/wp-content/uploads/2017/06/Ecumenical-Document-on-Human-Sexuality.pdf>.

2014-15년에는 ESHA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참여가 계획되었습니다.²⁰⁴⁾ 지난 4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성 다양성 문제를 주변부에서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부분 꺼려했던) 교회와 신학대학이 이 민감한 문제를 전통적인 '죄와 정죄' 모드가 아닌 목회적 돌봄의 정신으로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는 성 소수자 문제가 '서구적 의제'가 아니라 국내 청년, 교회, 신학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위한 특별한 사역을 시작했고, 몇몇 신학대학은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참여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관심 있는 교회와 신학대학은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 모듈의 형태로 안내 과정을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이러한 수준의 참여를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인도 교회와의 지도적 위치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자메이카 교회 협의회. 1941년에 설립된 자메이카교회협의회(JCC)는 카리브해교회협의회(CCC)와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개신교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²⁰⁵⁾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JCC는 단체로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JCC는 가족 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때로는 CCC와 함께 참여했으며, 1990년대에는 결혼 관련 법안과 가족 생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섹슈얼리티와 HIV 및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는 공공 교육 활동, 교인 대상 세미나, 성직자 및 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보도 자료의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에 발표된 성명은 낙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동의하면서도 필요에 의한 낙태는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JCC는 입양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JCC가 보건부 역학부 및 WCC의 지원을 받은 CCC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성직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HIV와 에이즈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JCC는 성폭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은 목요일

204) <http://www.eshancci.org/about-us-2>.

205) See The Jamaica Council of Churches website
<http://jamaicacouncilofchurches.yolasite.com/>.

캠페인'을 홍보하고, 'HIV와 에이즈에 관한 신앙 지도자 지역 상담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및 HIV의 연관성과 신앙 공동체 내 HIV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JC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폭력을 거부하고 교회가 자비로운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지만 동성 결혼은 성경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습니다.는 교회 내 성적으로 부적절하고 학대적인 행동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아동 성학대 혐의로 성직자들이 체포된 후 성학대를 비난하고 교회에 일관된 윤리적 행동과 책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JCC는 또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사역과 동성애 금지법 폐지에 관한 논쟁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기독교 협의회. 스웨덴 기독교 협의회(CCS)는 27개 기독교 교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매우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단은 정교회, 로마 가톨릭, 루터교, 자유 교회(오순절, 복음주의, 침례교, 감리교, 회중교회, 그리고 보다 근본주의적이고 상당히 자유로운 다양한 교회) 등 4개의 '교회 계열'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회장단의 구성원은 각 교회의 총대 또는 해당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큐메니칼 헌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는 항상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일부 회원 교회는 적어도 실제로는 수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받아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회원 교회는 낙태를 가장 좋은 세상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몇몇 교회는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낙태를 대안보다 덜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평의회에서 심의할 사안은 보통 회원 교회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성 관계와 결혼 개념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적어도 1970년대 초부터 스웨덴 교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1994년 스웨덴 교회 주교회의는 시민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동성 커플을 위한 기도와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논의가 CCS로 옮겨졌지만 큰 갈등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한 미술 전시회로 인해

동성애와 예수에 대한 다른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CS가 주최하는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가 여러 차례 열렸고, 매년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리더십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매우 솔직하고 개인적인 날을 강화하여 서로에게는 완전히 개방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성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필요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시민적 파트너십과 전통적 결혼을 서로 다르지만 병행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전략을 중심으로 단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교를 배경으로 하는 스웨덴 교회는 결혼이 성례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동성 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종교 단체는 스톡홀름의 주요 침례교회와 스톡홀름의 유대교 회당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후 스웨덴 교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캐나다 교회 협의회. 캐나다교회협의회(CCC)에서 동성 결혼을 논의한 것은 에큐메니칼 대화가 변화해야 한다는 '코페르니쿠스 혁명' 결정의 모범이자 첫 번째 도전적인 시험 사례였습니다. 가중치 투표 절차가 '큰 교회 대 작은 교회'의 에큐메니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은 CCC는 1996년 투표를 포기하고 모든 회원 교회가 동등한 입장에 서서 증언하는 정신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포럼 테이블을 만들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교회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자기 교회의 교리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교회의 견해를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합의가 확실한 주제를 선정한 후, 교회들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정중하게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포럼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002년에 동성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캐나다 법무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전이었고, 몇몇 교회는 동성 결혼을 축복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교회는 반대하고 있었고, 많은 교회는 분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UCC),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NA), 미국정교회(OCA)의 발표로 운영위원회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발표자는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평등한 관심에 근거하여 "찬성", 성경적 근거에 근거하여 "반대", 전통과 도상학(iconography)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등 각 교회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합의는 가능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모두의 의견은

동등하게 들었습니다. 각 입장의 진지함, 명료함,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모두 감탄했고, 세 발표자는 자연스럽게 서로 포옹했습니다!

이 결과는 교리적 다양성이 포럼 내에서 에큐메니칼 일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CCC를 만족시켰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흑백으로 나누길 원했던 언론은 좌절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계몽적인 설교는 기독교인들이 진리가 분별의 과정을 허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진심을 겸손하게 존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필리핀 전국 교회 협의회. 2014년, 필리핀 전국교회협의회(NCCP)는 성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HIV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성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에큐메니칼 플랫폼에서 교회의 행동, 무행동,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제24차 총회에서 NCCP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존엄성을 부여받았으며,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창조주의 선물이므로 긍정하고 축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를 발표하면서 이 입장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따라 총회는 교인들에게 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② 성경에 근거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인간 성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며, ③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및 표현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부터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성직자, 여성,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에큐메니칼 관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SOGIE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여성 양성 과정에 관한 NCCP 모듈과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국제 종교 지도자 모임(INERELA+)에서 발간한 SAVE 툴킷은 젠더 및 섹슈얼리티 토론에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성경에 근거하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자료를 개발하라는 총회의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1)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긍정, (2) 다양성과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의 가치, (3) 포용, 연대, 존중의 가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회원 교회, 협력 신학교 및 기관의 대표들에게 인간의 섹슈얼리티, 특히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자원 연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이 컨설팅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각 교회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에 참여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NCCP 회원 교회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자신의 이야기와 어려움,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자문은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구현하고, 다양성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어려움에 비추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NCCP의 여정은 LGBT 단체, 커뮤니티 및 동맹국들과 파트너십, 협력, 우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에큐메니칼 학습은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로 인해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까지 NCCP 회원 교회 10개 중 최소 5개 교회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LGBT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연합 기구로서 이 사업에서 계속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존중과 연대, 집단적 학습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9년 11월, '두려움 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제25차 총회를 앞두고 있는 NCCP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성,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축하받으며 최대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옹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제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친절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전체에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7.2.5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

라틴 아메리카 교회 협의회(CIAI).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주제는 라틴아메리카 교회협의회(CIAI)의 지도자들과 신앙 공동체에게 지속적인 도전이자 요구였습니다. 1978년 오악스테펙에서 창립된 이래 CIAI를 구성하고 있는 20개국의 상황과 더불어 다양한 신앙고백적 전통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웠습니다.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여성과 성 정의 사목'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마초주의, 성차별, 깨어진 관계, 제도적 폭력, 성 및 생식 건강 등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는 선구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는 기독교적 소명, 에큐메니칼적 존재감, 종교 간 노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대중 홍보 활동과 시민 사회 및 정부 간 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권리를 강조하며 지역, 국가 및 하위 지역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구축과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교회와 성 및 재생산권' 협의회와 함께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를 위한 훈련 지침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체결한 협약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CIAI는 "시민 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종교, 신념 및 영성에 관한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섹슈얼리티 및 재생산 권리에서 시작된 다른 네트워크와 함께 LGBTI, 신학교 및 대학의 공통된 정체성과 해방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미주기구 회원국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은 신앙 기반 단체(FBO)의 헌신적인 활동을 위협하고 우리 대륙에 눈에 띄게 퍼져 있는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고정관념을 해명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회원국, 시민사회, FBO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섹슈얼리티와 젠더 문제를 도덕적 편견 없이 시급히 다룰 수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HIV와 에이즈는 아시아기독교총연합회의 프로그램 우선순위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CA는 우려를 해소하고 아시아에서 HIV에 대응할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및 옹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회원 교회 및

협의회와 함께 HIV와 에이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A는 '아시아 HIV 및 에이즈 퇴치를 위한 행동 함께하기(ATCHAA)' 프로그램을 통해 HIV 감염인을 포용하고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원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는 지역사회에서 HIV와 에이즈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상업적 성 노동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은 HIV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CCA는 2018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생식 건강을 다루고 더 안전한 성을 실천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HIV 및 에이즈, 인간의 섹슈얼리티, 생식 건강 분야의 전문가들과 CCA는 이 주제를 더 잘 이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컨설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컨설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생식 건강에 대해 교회 및 교인들과 긍정적인 대화를 위한 전략 개발
2. 인간의 섹슈얼리티 및 생식 건강과 관련된 HIV 전파 예방 전략을 이해하고 옹호한다.
3.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전파한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참여에 관한 모범 사례를 문서화하여 전파하고, 이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참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교회가 취약한 지역사회를 위한 예방, 돌봄 및 지원에 대한 행동 계획을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의 협의와는 별개로, CCA는 아직까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들.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AACC)의 경우, 가족 생활과 성 정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주제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중동교회협의회(MECC)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룬 것은 몇 년 전인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모든 교회가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다른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 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태평양교회협의회(PCC) 회원 교회들에게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금기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PCC 의제에서 다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논의되어 왔지만, 교회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식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럽교회협의회(CEC)의 총무는 WCC 레퍼런스 그룹에 보낸 서신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7.2.6 신학교 및 신학 기관

많은 신학 기관들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일부 교회와 공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신학교. 수년 동안 신학교 공동체에는 학생, 교직원, 강사 모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벽장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습니다. 1993년 학생들은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자카르타의 게이 커뮤니티에 파견되어 게이 또는 트랜스젠더의 의미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신학교는 이 문제를 공개적인 대화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는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성소수자 주간이 조직되었습니다.²⁰⁶⁾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또래 교육자 및 또래 상담자 캠프, 국제 동성애 공포증, 트랜스포비아, 양성 공포증 반대의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같은 더 많은 활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²⁰⁷⁾

206) "LGBT Week at Jakarta Theology Seminary, *her lounge* (blog), 17 November 2011, <http://herlounge.blogspot.com/2011/11/lgbt-week-at-jakarta-theology-seminary.html>.

207) See, for example,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https://www.iasp.info/wspd/pdf/2013_wspd_activities.pdf, sv Indonesia.

많은 교회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지 교회에 접근하여 인도네시아 신학교육을 받은
여성 협회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소수자에 대해
더 잘 공감할 수 있고, 가족 생활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함께
일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람포레 대학 상의원.Senate of Serampore College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의 약 54개 대학이 1818년에 설립된 Serampore College의 상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상황 신학을 강조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 학사 커리큘럼은 2010년에 개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은 대학이 존재하는 맥락을 인식하여 발전했으며, 학생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같은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과정이 개발되었습니다. HIV와 에이즈, 그리고
인도 사회에서 성 문제가 금기시되는 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자 인도
전국교회협의회(NCCI) 총무는 상원 등록 담당자에게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0년 커리큘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신학과 윤리 클러스터에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과목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자료와 기타 필요한 코칭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신학 교수와
후보생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NCCI는
세람포레 대학 원로회와 함께 강의 계획서를 개정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줄루 나탈 대학교-우자마 센터. 우자마 센터는 1985년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나탈 대학교(현재 과줄루 나탈 대학교, UKZN)의 신학교의
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 교회와 시민 사회의 개발과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비당파적, 비종파적 지역사회 개발
및 연구 센터입니다. 이 센터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사회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자마 센터는 사회와 개인의 변화를 위해 성서적, 신학적 자원을 활용하여
빈곤층, 노동자 계급, 소외계층의 공동체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자마 센터의 핵심은 실천의 개념과 실천입니다. 실천은 행동과 성찰의 순환 또는 나선형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포함합니다. 우자마 센터는 성경과 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예언자적으로 일하며 모든 사람의 해방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요한복음 10:10).

주요 관심사는 부유한 엘리트층을 유지하고 대중을 빈곤에 빠뜨리는 경제 시스템, 남성의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여성을 종속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젠더 학대에 시달리게 하는 가부장제 등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죄악된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여러 여성 단체가 대학에 상황별 성경 공부(CBS)를 함께 하자고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성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타마르 CBS였습니다. 여성들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곧 여성들이 침묵하지 않는 것은 젠더 기반 폭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줄루-나탈의 여성 단체들도 HIV와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터마리츠버그의 에덴데일 병원에 있는 교회 기반 여성 단체의 한 여성은 병원에서 "집에 가서 죽으라"고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성인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HIV 양성 여성들은 CBS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남성들을 HIV 지원 그룹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남성들도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젠더 작업은 "구속적 남성성"에 대한 작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남성들이 게이 남성성을 포함한 "남성이 되는 다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침묵은 남성들에 의해 깨졌습니다.

젠더 연구, HIV 연구, 구속적인 아프리카 남성성을 찾는 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 서클의 작업과 많은 공감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섹슈얼리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사이트와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UKZN의 종교, 철학 및 고전 학교의 젠더, 종교 및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학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전은 피터마리츠부르크 게이 및 레즈비언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대에는 종교와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제도 교회(AIC)의 성직자들과 게이 및 레즈비언 네트워크의 성직자들을 포함한 지역 성직자들을 한데 모은 특정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 사회 기반 CBS 작업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다양한 성직자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과 함께 현지 언어로 작업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CBS의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직자들의 인식, 태도, 관행에 변화가 생겼고 아프리카 성소수자 기독교인들 사이에 존엄성, 긍정, 포용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현지 사업을 통해 우자마 센터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 상황에서 구축된 CBS 자원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전역의 다른 섹슈얼리티 관련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자마 센터에서 시작한 타마르 상황별 성경 공부 캠페인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폭력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프리카 레즈비언 여성에 대한 소위 '교정' 강간이라고 불리는 증오 범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가부장적 통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프리카 여성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²⁰⁸⁾

서인도 제도 연합 신학 대학. 서인도제도 연합신학대학(UTCWI)은 1960년대에 자메이카의 개신교 신학대학이 합병되고 다른 카리브해 국가의 일부 개신교 교단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²⁰⁹⁾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목회와 상담, 기독교 윤리, 심리학 등 교과 과정의 일부 과목에서 다뤄졌습니다. 2004년에는 HIV 및 에이즈 교육, 전문 상담 훈련, 낙인 및 차별 종식을 위한 옹호 활동을 위한 우수 센터로 UTCWI를 설립하면서 주요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이어 두 번째로 HIV 감염률이 높다는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카리브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지역의 높은

208) <https://srpc.ukzn.ac.za/news/2021/02/ujamaa-centre-hosts-annual-eudy-simelane-memorial-lecture/>.

209) For more information on UTCWI, see www.utcwi.edu.jm.

HIV 유행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리브해 보건부에서 사용 중인 자발적 상담 및 검사(VCT) 방법의 숙련된 마스터 트레이너를 채용했습니다. 초교파적 접근을 통해 UTCWI, 성공회 교구 HIV 및 에이즈 위원회, 웨스턴 기념 연합 교회 상담 센터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모든 UTCWI 학생들은 VCT 교육을 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은 섬 내 교회와 다른 신학교에도 VCT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육은 신학생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 선호도, 편견에 직면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행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07년 UTCWI 이사회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목회적 돌봄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교회 사역을 하는 성직자들과 UTCWI 커뮤니티, 지역 주교와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MCC), 자메이카 에이즈 지원(JAS), 자메이카 레즈비언과 게이를 위한 포럼(J-FLAG)의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젊은 남성 및 여성의 HIV 감염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검사를 위한 시설 이용에 대한 거부감, 이들 인구의 높은 감염률,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 요인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HIV의 모자 간 전염은 거의 사라지고 콘돔 사용이 증가했지만, 경제적 요인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젊은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낙인 및 동성애자 투옥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 인해 남성 동성애자의 HIV 감염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메이카 기도: HIV와 에이즈에 민감한 전례와 설교를 위한 핸드북’은 이 대학에서 발행한 중요한 자료입니다.²¹⁰⁾ 이 대학은 또한 VCT 교육을 받은 UTCWI와 다른 신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목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VCT 교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섹슈얼리티와 성 기반 폭력, HIV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학은 또한 HIV 감염, 낙인, 차별을 종식시키고 카리브해 맥락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함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때 목회적, 윤리적 고려 사항과

210) Mary Hills Kuck, ed., *Jamaica Praying: A Manual for HIV and AIDS* (Jamaica: United Theological College of the West Indies, 2015), at: <https://www.oikoumene.org/en/press-centre/news/201cjamaica-praying201d-2013-a-manual-for-hiv-and-aids-has-been-launched>.

씨름하기 위한 VCT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류 신학교. 드류 신학교(미국 뉴저지 주 매디슨)의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민족, 신학, 교단,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 신앙 공동체와 가정 내 격렬한 갈등, 수치스러운 학대와 폭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신학교는 섹슈얼리티를 기독교 신학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통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이 학교는 연합감리교회 산하 대학원으로, 현재 연합감리교회는 성적 지향, 평등, 포용성 문제로 고통스럽고 깊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교회와 더 넓은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건설적인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문적 맥락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²¹¹⁾

학교의 접근 방식에는 교실 안팎에서 지속적인 기회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신학적, 문화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해치고 침묵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섹슈얼리티 문제를 공동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사상, 전통, 지도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필수 입문 과목의 커리큘럼에는 쿼어 성서 해석학,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성교육, 성직자 성추행, 장애와 섹슈얼리티의 신성한 윤리, 매그니피캣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빈곤 미혼모에 대한 학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 재생산 공공 정책,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성교육, 아동 성학대 등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섹슈얼리티와 종교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강의실 밖에서는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감독이 진행하는 동성애와 교회에 관한 공개 포럼 시리즈와 같은 커뮤니티 토론이 조직되었습니다. 드류 공동체의 전례 생활에서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이 학교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게 구현된 인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기독교 음악, 기도, 설교,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적 지향(LGBTQ 학생 그룹 리더가 주도), HIV 및 에이즈에 걸린 삶과 같은 주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성에 초점을 맞춘 전체 채플 예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학 석사 학위 커리큘럼을 개발하면서 교수진은 환경,

211) For discussion of the pedagogical challenges, see Kate Ott and Darryl W. Stephens, "Embodied Learning: Teaching Sexuality and Religion to a Changing Student Body," *Teaching Theology and Religion* 20, no. 2 (April 2017): 106-16.

인종, 종교 간 정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헌신과 함께
섹슈얼리티/젠더 정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적 헌신을 통합하고 대화하기
위한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개발 중인 신학생을 위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이 상처받은 사람들과 정의로운 공동체 관계를
지원하는 포용적인 기독교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2)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정체성(인종, 성별, 계급 등)의 교차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교차적 기독교 자료를 제공하는 것, (3) 기독교 전례 예술을 통해
창조적이고 치유적이며 긍정적인 영적 활력을 창출하는 것.²¹²⁾

7.3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회들의 대화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들

이 교훈은 교회, 기독교 세계 공동체, 국가 협의회, 지역 에큐메니칼 기구,
신학 기관들이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길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
이러한 대화를 위한 안전한 은혜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WCC 회원 교회들은 기독교 세계 공교회,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
국가 교회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에큐메니칼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WCC의
논의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이야기들은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시도했던 상호 책임의
예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목회적 돌봄의 실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경우에 성경, 전통, 이성, 경험과의 씨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토론을 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는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지침에 대응해 왔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결성된 그룹이 토론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신하여 옹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권력, 정의에 대한 모순적이고 선택적인 해석. 전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성 특성을 가진

212) For more on Drew Theological School, see
<https://www.drew.edu/theological-school/>.

사람들에 대한 논쟁과 태도를 형성한 다른 요인들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초국가적 동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 또는 보다 '진보적'인 의제를 추구합니다. 돈, 재정적 권력 또는 교회의 위협이 교회 관계와 파트너십을 지배하는 경우, 정직한 대화와 상호 학습을 위한 은혜의 안전한 공간에서의 대화는 무력화되고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시민 사회 단체와 연합하여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주류 교회는 시민 단체 및 운동과 연대하여 기독교 시민을 동원하여 소위 '동성애 선전'과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강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정의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및 그 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성 소수자를 위한 젠더 정의와 정의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

거의 모든 맥락에서 교회 정치를 포함한 정치와 풀뿌리의 관심사 및 요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풀뿌리의 관심사는 때때로 정치 지도층의 관심사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동성애, 재생산권 등의 이슈에서 일상 속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다양한 정치적 의제에 얼마나 반영되고 대응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이슈로 인해 제기되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적 가치의 틀 안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전인적이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성공적으로 다룬 교회들의 핵심 요소는 이 문제가 공동체 삶의 다양한 측면과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총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입니다.

무수히 많은 긍정적인 사례를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V 및 에이즈 극복
 - 섹슈얼리티 및 젠더 기반 폭력 극복
 - 변화하는 남성성과 여성성
 - 여성 할례(FGM) 근절
 - 할례, 아동 결혼, 과부 정화, 의식적 성관계, 지참금 등 유해한 전통 관행 극복
 - 아동 친화적인 교회 홍보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이고 연령에 맞는 가치 중심의 성교육 장려
-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경에 근거하고 상황에 맞는 성경 공부를 통해 다루어졌기 때문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목회 신학과 상담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전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포용성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며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목회 신학의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들은 모든 WCC 회원 교회의 의제로 남아 있으며, 안전한 대화의 장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에는 WCC 회원 교회가 아닌 교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안전한 대화의 공간 만들기: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문서는 WCC 정책 문서나 성명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회원 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교회와 공의회에서의 논의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대중의 이해 변화, 법률, HIV 및 에이즈에 대한 대응, 성별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무시당한 사람들에 대한 옹호 등이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또는 다른 교회 전통의 회원 교회가 전통의 정신과 신념을 넘어서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 방법이 당시의 인간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채택된 입장과 입장에 대해 만장일치가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교회와 공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 성경, 전통, 경험과 이성을 통한 학습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협의회 회원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 내부와 협의회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서의 서론에는 부산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문의 배경은 에큐메니칼 대화, 비즈니스 세션 및 기타 발표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WCC 회원 교회와 그 구성원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 총회의 권고를 여기에 반복합니다:

교회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는 WCC는 교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화와 도덕적 분별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예로는 젠더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은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랑과 상호 존중이 기본임을 기억하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공동의 의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²¹³⁾

세계교회협의회는 회원교회의 삶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취하고 심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부산 총회 이후 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찾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WCC 회원 교회들은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 서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2015년 11월에 열린 WCC 실행위원회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레퍼런스 그룹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 이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은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소위원회는 레퍼런스 그룹이 "은총의 공간"으로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레퍼런스 그룹은 수년 동안 이 권고안을 가지고 작업했지만, 광범위한 논의 끝에 '은혜'가 교회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은혜'는 1937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가 모색된 주요 주제였지만, 그 이후로 이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다자간 에큐메니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그룹은 합의가 이루어진 '대화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더 탐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WCC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이러한 대화는 에베소 서신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관용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엡 4:2). 와 순례의 전략적 목표는 신학적 성찰과 형성에 서로를 참여시키고, 신뢰와 이해의 관계를 구축하며, 세계를 위해 함께 하는 일에 대해 영감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에큐메니칼 책임 신학을 향한 성장과 포용적 공동체를 위한 목회적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3) L. Senturias and T. Gill (Eds.) *Encountering the God of Life: Official Report of the 10th Assembly*, (Geneva: WCC, 2014), 247.

8.1 안전한 대화의 공간

이 문서 전반에 걸쳐 '안전한 공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제공은 2001년, 2002년, 2003년에 열린 보세이 세미나를 통해 WCC가 기여한 주요한 공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세미나들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는 모델을 제공했습니다.²¹⁴⁾

세 세미나 모두 순례를 주제로 한 묵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 세미나들은 WCC 외부에서 온 전문 중재자(a member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각 세션마다 그룹의 합의를 테스트하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세미나를 시작할 때 모든 참가자들은 비밀을 지키고,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의 신념을 존중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성경 공부, 개인적인 이야기, 전통과 현대적 이해에 대한 통찰력, 중재자의 중재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지속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협의회, 신학 기관은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증명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다듬는 실험이었습니다.

8.1.1 보세이 세미나The Bossey seminars(2001-2003)

당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참고 그룹이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WCC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에큐메니칼 연구소, 샤토 드 보세이에서 열린 세미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²¹⁵⁾

첫 번째 세미나(2001년 7월)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적, 지역적, 세계적 관점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성스러운 전통

214) For an account of the seminars, see WCC Executive Committee Gen Pro 05: "Terms of Reference for the Human Sexuality Reference Group-Annex Background Document on Churches' Response to Human Sexuality,"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churches-response-to-human-sexuality>.

215) <https://archived.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assembly/2006-porto-alegre/3-preparatory-and-background-documents/churches-response-to-human-sexuality.html>.

신학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 대한 성찰에서 가장 좋은 신학이 나온다는 견해와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참가자 개개인의 개방성과 취약성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공유된 성찰과 신학화의 질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지역 문화의 압력을 매우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문화와 수행, 신앙, 경전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에큐메니칼 논의에서 종종 제시되곤 했던 것처럼 단순히 동성 간의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모든 인간에게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극도로 취약한 지점에서 종종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미나의 비밀 공유 공간에서는 고통, 죄책감, 한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도, 결혼 및 관계에서의 성생활 실패, 정체성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관계의 기쁨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별, 성적 지향, 문화에 따라 분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며 신성한 인간성과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성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새로운 세계를 다루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실천과 신학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몸의 신학을 되찾고 다양한 성적 표현과 경험에 더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사목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지역별 경험도 공유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가부장적 문화 구조, 성별 차별, 여성 인권 침해,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적 의식적 통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여성에게 "결혼 증명서는 사망 증명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적 네트워크, 일부다처제 및 기타 섹슈얼리티 관행은 아프리카 대륙에 HIV와 에이즈를 들불처럼 퍼뜨렸습니다. 콘돔 사용은 교회에서 계속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식민지화로 인해 신성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이 대대적으로 억압되었습니다. 세계화는 특히 여성과 아동의 신체를 상품화하여 불의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포스트모더니티가 섹슈얼리티 관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교회 내 토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거부당하는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 학대, 이혼율 증가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부끄러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혼에만 국한된 섹슈얼리티는 교회의 근본적인 도전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2002년 4월)에서는 국제 레퍼런스 그룹이 수집한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교회 성명서의 요약과 분석이 다루어졌고, WCC 총무는 교회에 인간의 성 문제에 관한 첫 번째 성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교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명서를 보내달라는 것이지, 새로운 성명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토 중인 성명서에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와 접근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교회 선언문과 성도들의 실제 경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접수된 성명서의 대부분은 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핀란드 정교회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고백적 관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형태가 축하되었지만, 수도원 공동체, 혼합 결혼, 전통 신앙 공동체 내 결혼,

레즈비언과 게이 공동체 등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도전은 공동체마다 다양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굳어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의 HIV와 에이즈 대유행, 비정부기구의 대응, 성직자나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 학대, 뉴질랜드의 교회 대응 등이 세미나에서 다뤄졌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2003년 4월)는 성경 공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 공부에는 그리스도의 몸, 성지 순례, 삼위일체라는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회적 관점을 공유하면서 이전에는 탐구되지 않았던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는 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는 가족 구조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성의 역할이 무의미해진 모자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남거나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조부모와 자녀까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입양이나 이전 관계에서 낳은 자녀 또는 체외 수정을 통해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섹슈얼리티, 일부다처제, 혼외 및 혼전 성관계, 동성애, 낙태, 피임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 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는 규범적이고 규범적인 모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잠정적이고 인생의 여정에 이정표를 제시하며 규범적이지 않은 신학의 본질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반문화로서의 공동체의 본질과 증거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보세이 세미나는 존중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문화적, 교회적 경험, 다양한 신학적 접근법,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통찰과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WCC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와 씨름하는 교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보세이 세미나에서 안전한 대화의 공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차이와 결핍,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함께 머무는 동료로서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세계교회협의회 간의 공동 실무 그룹은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화의 본질에 대해 먼저 탐구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대화에는 한편으로는 말하고 제안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상호 작용, 즉 교환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화는 독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에큐메니칼 대화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코이노니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²¹⁶⁾

피터 노이너는 에큐메니칼 대화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즉 지평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나는 대화에 들어갔을 때의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화에서
 나온다. 대화에서 나는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는 항상 위험합니다." 노이너는 계속해서 대화를
 "지평의 융합"으로 탐구합니다.²¹⁷⁾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 역사를 통해 대화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교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밝히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이해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나머지 차이점을
 통해 지속적인 작업을 위한 의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대화의
 필수적인 첫 단계이지만, 피터 노이너가 지적했듯이 대화라기보다는 독백,
 즉 "양방향 독백"에 가깝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지평의 한계 내에서만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는 유혹을 너무 쉽게 받는다."²¹⁸⁾
 이러한 비교 방법론은 1927년 로잔과 1937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 에큐메니칼 토론을 지배했습니다.

대화의 첫 단계인 비교적 대화 방법은 1952년 룬드에서 열린 세계 신앙과
 직제 회의에서 강조된 협력적 방법으로 대체되었고, 교회들은 룬드
 원칙으로 알려진 것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과 대화할 충분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깊은 신념의
 차이로 인해 따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서 함께 행동해야 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²¹⁹⁾

따라서 대화는 교회들이 각자의 전통에서 얻은 통찰을 대화에 가져오는
 공간이 되었고, 함께 협력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²²⁰⁾

216) Joint Working Group, *The Nature of Dialogue* (1967). A Second exploration of the theme was undertaken by the Joint Working Group see http://www.prounione.urbe.it/dia-int/jwg/e_jwg-info.html.

217) Peter Neuner, "Interchurch Dialogue," in *Dictiona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2d ed., ed. Nicholas Lossky, et al. (Geneva: WCC Publications, 2002), 320.

218) Neuner, "Interchurch Dialogue," 320.

219) Oliver Tomkins, ed., *The Third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 Lund 1952* (London: SPCK, 1953), Vol 52, p 20.

220) See Kuncheria Pathil, *Models in Ecumenical Dialogue* (Bangalore: Dharmaram Publications, 1981).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들으려는 상황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적으로 듣는 공간입니다. 진지한 경청의 장이며,²²¹⁾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식과 태도가 변화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 랍비였던 조나단 섉스는 그의 저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에서 대화 문화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성소 건축에는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성소의 가구 중 가장 성스러운 물건은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는 가장 성스러운 물건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석판이 들어 있었고, 방주 위에는 그룹이라는 두 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그들의 얼굴이 서로 향했다"(출 25:20)²²²⁾고 합니다.

현자들은 그들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말하거나, 다른 해석으로는 연인처럼 얹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그룹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사랑, 포용, 관대함, 보살핌으로 서로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너"를 향해 "나"를 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친절을 통해 자기와 자기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계십니다.²²³⁾

대화와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할 때 나타나는 이해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월터 카스퍼 추기경이 말했듯이, "우리는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만남 그 자체입니다. 타자는 내 존재의 일부이자 풍요로움을 더하는 존재이며, 나 자신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대화는 인간 존재의 실재에 속합니다. 정체성은 대화적인 것입니다."²²⁴⁾

이러한 대화의 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성향이 필요합니다.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는 올리비에 클레망과의 유명한 인터뷰에서 이를

221) For an account of ecumenical dialogue, see Alan Falconer, "The Challenge of the Culture of Dialogue," in *Ecumenical and Eclectic: Essays in Honour of Alan Sell*, ed. Anna Robbin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5), 205-21.

222) "The cherubim shall spread out their wings above, overshadowing the mercy seat with their wings. They shall face one to another: the faces of the cherubim shall be turned towards the mercy seat" (Ex. 25:20).

223) Jonathan Sacks, *To Heal a Fractured World* (London: Continuum, 2005), 54.

224) Walter Kasper, "The Nature and Purpose of Ecumenical Dialogue," *Ecumenical Review* 52, no. 3 (March 2009), 293. See also Konrad Raiser, "The Nature and Purpose of Ecumenical Dialogue: Proposal for a Study," *Ecumenical Review* 51, no. 3 (March 2009): 287-92.

그리스도의 정신, 즉 겸손, 자아의 포기과 타자에 대한 무관심한 환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성향은 빌립보서 찬송가(빌 2:5-11)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변화의 삶입니다.²²⁵⁾ 이러한 존재 방식은 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WCC 총회는 "일치가 요구하는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에큐메니칼 헌신이란 대화에 참여하는 각 교회가 "자매 교회들과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²²⁶⁾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대화의 과정에서 변화된다. 순례의 길에서 대화의 언어와 대화는 재배치, 이동과 변화, 새로워짐을 가리키며, 이는 곧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대화의 공간에서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그들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1.2 대화의 공동체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솔직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을 장려하는 개방성과 비규범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대화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교회와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책임이 있는 비판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공간은 일관성 있고 포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이 환영받고, 짓밟힌 사람들이 존엄성과 위안을 찾고, 배제된 사람들이 거룩하고 안전한 가족과 공동체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부로 변화되기를 열망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교회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안전을 제공하는 신뢰와 비밀이 보장되는 신성한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225) See section 5.5 in this document.

226) David M. Paton, ed., *Breaking Barriers* (Nairobi, 1975; London: SPCK, 1976), 60.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한복음 15:9-10). 이러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인 것을 기뻐하면서 상대방의 타자성을 사랑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위협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고 각 사람의 완전성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이지 않은 공간. 행동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곳, 정직할 수 있는 곳,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공간입니다.²²⁷⁾

8.1.3 안전한 대화의 공간의 특징

이러한 공간에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및 관련 문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비판적인 대화와 토론을 촉진합니다. 이 공간은 교리와 도덕적 규범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유연성과 사회적 행동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이해와 신학을 심화시키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판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행동과 정체성을 심화시키고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안전한 대화의 장을 위한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공간의 진행자 또는 사랑과 폭력에 반대하는 공동 학습의 대사는 각 교회에서 국가 및 교구, 노회 또는 감독 차원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도전과제에 대한 집단적 주인의식과 해결에 기여할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이 공간은 장벽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개인, 그룹, 커뮤니티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또한 이

227) See C. Campbell, M. Skovdal, A. Gibbs, "Creating Social Spaces to Tackle AIDS-Related Stigma: Reviewing the Role of Church Groups in Sub-Saharan Africa," in *AIDS and Behavior* volume 15, (2011) p 1204-1211. Our notion of safe spaces of grace was developed from their "six features of supportive social spaces."

공간은 신뢰성과 같은 핵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밀이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동행하고, 지지하고, 멘토링을 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이며, 이로 인해 더 취약해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커뮤니티 외부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잠재적 지원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자본을 연결하거나 연결합니다.

안전한 대화의 공간은 또한 권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모든 잠재적 차이의 표식과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신앙 공동체 내의 그룹을 연결하고 연결하여 공동체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소수자와 다수자, 선주민과 이주민 등 안전한 공간을 질식시킬 수 있는 권력 역학 관계와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 실제로 작동하는 예로는 남아프리카 과줄루 나탈 대학교의 우자마 센터에서 시작한 타마르 캠페인을 탄생시킨 상황별 성경 공부 운동이 있습니다.²²⁸⁾ (7.2.6장 참조) 타마르의 강간 사건(삼하 13:12-18)에 대한 상황별 성경 공부(CBS)는 여성 폭력에 대한 집단적 침묵을 깨고 변화와 효과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젠더 및 성폭력 반대 캠페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타마르 캠페인은 교회가 성폭력과 폭력적인 남성성 모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풀뿌리 이니셔티브는 남아프리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들과 다른 대륙으로 확산되었습니다.²²⁹⁾ 에큐메니칼 HIV 및 에이즈 이니셔티브와 옹호, 정의로운 여성과 남성 공동체, 에큐메니칼 신학 교육 등 여러 WCC 프로그램이 이 방법론을 수용하여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8.1.4 안전한 대화의 공간

8.1.4.1 가족 공간은 형평성, 안전, 관계의 신성함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학대를 예방하는 곳입니다.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의붓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다말의 강간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어느 사회에서나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가족을 당연시할 수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고, 영적, 육체적으로 보호하고, 멘토링하고, 교육하고, 정보를

228) Manoj Kurian, *Passion and Compassion: The Ecumenical Journey with HIV* (Geneva: WCC Publications, 2016), 75-77.

229) Gerald West and Phumzile Zondi-Mabizela, "The Bible Story that Became a Campaign: The Tamar Campaign in South Africa (and Beyond)," *Ministerial Formation* 103 (July 2004), 4-12.

제공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가족 공간은 안전하고, 힘이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가족 내에서 개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시의적절한 토론은 가족의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²³⁰⁾

8.1.4.2 회중 공간은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촉진하는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 원칙, 관행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청년, 여성, 남성 그룹, 주일학교, 종교 학교, 신학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단, 교파 간 또는 종교 간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²³¹⁾

회중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이 공간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파순단 기독교회는 WCC 회원 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트랜스젠더 공동체 구성원 및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의 르 랩(*Le Lab*)은 제네바 개신교회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교인들의 존재에 자극을 받아 시작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3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2년이 지난 지금 4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8.1.4.3. 커뮤니티 공간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스템, 원칙 및 관행이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중요하고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우려 사항을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안전 공간은 사람들이 성별, 인종/민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문화적 배경, 종교, 나이, 신체적/정신적 능력 등을 이유로 불편함, 환영받지 못함,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각 개인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곳입니다. 성공의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안전한 대화의 공간에 영향을 받는 인구와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230) Kurian, *Passion and Compassion*, 62.

231) Kurian, 61.

1995년부터 포용과 긍정 사역(IAM)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마음을 열고, 아프리카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LGBTI를 더 많이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 충실히 일하는 헌신적인 변화의 주체들과 함께 문을 열면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외되고 거부당하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섹슈얼리티를 하나님의 선물인 영성과 통합하며,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를 통해 확인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나머지 지체들에게 주체성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비정부기구(NGO)이자 신앙 기반 단체(FBO)로서 IAM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가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IAM은 다른 역할 플레이어 및 모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종교 간 네트워크(GIN-SSOGIE)의 회원들과 함께 주변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순례에 세운 마음' 교육과정을 제작하고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했습니다.

8.1.4.4 윤리적, 신학적 공간은 분석, 가르침, 실천, 교리, 축하, 영성, 예배, 전례에서 관련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 전통, 이성, 경험, 문화적 지혜, 현대적 통찰력(위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분별력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신학 기관은 신학적 분석을 위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출판물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핵심 사상을 정리합니다.²³²⁾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학교는 1993년부터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솔직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신학생들은 이 주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공동체와의 교류, 신학적 성찰, 심도 있는 연구와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매년 250명의 신학생 중 절반이 이 프로그램을 접합니다. (7장, 7.2.6절 참조).

8.1.4.5 거버넌스 및 리더십 공간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의사 결정권자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역동적인 공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입하여 건강하고 정보에 입각한

²³²⁾ Kurian, 61.

균형 잡힌 사회를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는 곳입니다.²³³⁾ 거버넌스와 리더십 공간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남부 아프리카의 성공회 교회입니다(7장 7.2.1. 섹션 참조).

8.2 관용: 순례의 길에서 다름과 함께 살아가기

순례의 길에 관한 대화를 통해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직면한 다양한 교회와 에큐메니칼 단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서로 다른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깊이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교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화해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제한된 차이"로, "때로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유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의해 수정되는 비판적이고 끊임없이 재협상되는 공간"²³⁴⁾으로 묘사되는 접근 방식도 제안되었습니다.

이 문서 전체에 걸쳐 안전한 대화의 공간이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잘못된 편안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공간은 갈등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종종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공간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논의해 온 WCC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만장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깊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질문과 씨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갈등과 서로 다른 태도를 견뎌내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방향은 골로새서 3장 12~14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기록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자신을

²³³⁾ Kurian, 60.

²³⁴⁾ Defined by Ian Torrance, who was responsible for the term in the Church of Scotland Theological Forum report of 2017, in a letter of clarification.

못 입으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묶어주는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안에는 의견 불일치와 분열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분열의 원인 중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교회의 경우, 유대인이 아닌 개종자들을 끌어들이면서 교회 구성원이 다양해졌습니다. 에베소 서신은 첫 찬송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일치와 화해에 대한 확장된 설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일치의 실천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는 소명의 필수적인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초대 교회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은 신학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대안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물질 세계에 대한 과도한 금욕주의와 거부를 촉구하는 영지주의적 이상에 호소했습니다. 골로새 서신은 이러한 영지주의 신학에 열정적으로 반대하며 이에 대응하여 교회가 팔복의 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망토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롬 3:22-25).²³⁵⁾ 이러한 태도가 다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함께하는 삶』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성찰하면서 그 중심에 관용의 섬김을 놓았습니다.²³⁶⁾ 관용에 대한 호소가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후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임스 칼빈 데이비스는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용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자신의

235) We have drawn extensively on James Calvin Davis, *Forbearance: A Theological Ethic for a Disagreeable Church*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7).

236) Dietrich Bonhoeffer, *Life Togethe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100-102.

신념을 고집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을 완성하는 동시에 옳고 진실한 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끈질기게 유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원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하고, 최선의 전략을 분별하도록 장려합니다.²³⁷⁾

분명한 것은 관용은 편 가르기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긴장감 있게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삶의 방식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초대합니다. 교회는 사회에 의견 불일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순례의 길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3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과제들

다음은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WCC가 직면한 여섯 가지 쟁점 또는 도전 과제입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WCC의 모든 대화는 결혼과 결혼식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따라서 결혼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회원 교회들의 다양한 가르침이 전면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교회는 결혼을 신비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은 결혼이 성사라고 믿는 반면, 많은 개신교 교회는 결혼이 의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많은 교회는 결혼 계약은 국가가 관여하는 문제이고 부부의 공존에 대한 규제는 시민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혼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WCC 회원 교회들이 직면한 도전은 고백과 상황적 다양성에 민감한 결혼의 본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 전체에서 새로운 기술과 소셜 미디어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그룹은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이것이 WCC와 회원 교회들의 삶과 사역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CC와 회원 교회들의 도전은 현대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과 이것이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토론과 검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와 회원

²³⁷⁾ Davis, *Forbearance*, 166.

교회들은 이러한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해 유엔과 그 기관,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WCC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맥락에서 회원 교회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기구들의 활동과 통찰로부터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습니다. WCC는 자체 집회와 회의에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에 직면했을 때, 조직으로서 '개인 청렴성 위반 혐의 발생 시 절차'(규정 II 5.03 및 규정 VI i.01)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괴롭힘이나 성적인 부적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WCC의 관행과 절차에 명시되어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제네바주의 법률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불만 제기 및 조사 절차를 수립하고 타인을 비하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WCC 사무국의 끊임없는 도전은 존중과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을 정책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존중하는 토론과 관용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 채택의 한 측면은 소수의 입장이 다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인류애에 도움이 되는 화해와 존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²³⁸⁾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교회가 아직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부 회원 교회와 관련 교회협의회, 배경, 토대, 이야기를 제공하지만, 정의와 평화를 위해 증언해야 한다는 공통의 소명 때문에 각 교회가 참여하는 상호 책임감을 수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8.4 교회들을 위한 도전 과제

8.4.1.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과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더 넓은 목회적 고려

모든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목회 신학과 상담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접근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청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238) *When Christian Solidarity Is Broken: A pastoral and educational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Geneva: WCC, 2006), 2,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a-pastoral-and-educational-response-to-sexual-harassment>.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그리고 선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와 씨름하며 교회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영적 지도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자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성경적, 신학적 분별력을 발휘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책임 있는 목회 신학의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는 모든 WCC 회원 교회와 그 밖의 교회들의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목회신학 분야는 아직 WCC 회원 교회 내부와 회원 교회들 간에 동등하게 발전되고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WCC 회원 이외의 교회들과도 안전한 대화의 장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인간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사목신학'에 대한 추후 WCC의 또 다른 전공 및 2차 연구가 필요할 수 있는 인간 성에 대한 사목신학의 광범위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있어서 사랑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가정생활과 결혼을 위한 젊은 커플들의 준비.
- b) 청년과 청소년의 혼전 성 경험에 관한 윤리적 고려 사항(청소년을 위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육 포함)
- c) 출산에 대한 개방성 및 가족 계획 및 피임의 윤리와 관련된 가족 생활에서의 인간의 섹슈얼리티
- d) 파트너 간의 성적 충동의 강도 차이 경험에 대응하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책임감있는 대책 및 합의
- e) 인간의 섹슈얼리티, 가정 생활, 질병 및 노화 (질병 및 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 f) 인간의 섹슈얼리티, 불신앙, 결손 가정 및 치유의 과정
- g) 인간의 섹슈얼리티, "결혼 의무" 및 폭력, 근친상간 또는 강제 섹슈얼리티 사건
- h) 변화하는 가족 생활의 형태, 아동의 존엄한 인간 섹슈얼리티에 관한 역할 모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8.4.2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에큐메니칼 책임 교육과 신학을 향한 성장

많은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은 성 및 성 건강의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 및 성교육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수록 난잡한 행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건강,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성행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보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밝혀졌습니다. 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성병, 위험 감수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성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지지적인 가족, 그리고 신앙의 틀 안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는 이 목표를 향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이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촉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전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회의 책임은 책임감 있는 도덕적 행동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섹슈얼리티 교육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용어가 무엇을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 교육을 제공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은혜의 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가르치고 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은 아이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학대, 인간성 훼손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기반한 포용적인 성교육은 건강하고 거룩한 성의 선물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²³⁹⁾ 성을 인간의 인격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고, 성이 우리의 전 생애와 존재의 전 기간에 걸쳐 통합되는 방식을 인정하는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과 침묵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는 교회가 참여해야 할 분명한 소명,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깊은 영적 연결을 발견하거나 재발견할 수 있는 치유와 화해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이고 신앙에 기반한 종합적인 성교육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성을 신앙의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생물학적 측면이나 생식 기관의

239) There are several guides and resources for responsible and holistic human sexuality education developed by Christian churches in their particular cultural contexts. See for instance, *Our Whole Lives*, a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urriculum co-published by the United Church of Christ (USA) and the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of Churches.

역학적인 측면을 넘어 성이 삶 전체와 교차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포괄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판단에 맡길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는 본질적인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중요한 핵심 가치로는 상호 동의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신앙인, 신앙 지도자, 교회와 그 기관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개인과 집단에 낙인을 찍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수사와 행동에 반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시에, 피해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건강과 온전함을 증진하는 데 참여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HIV 감소와 같은 성적 피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일부이며,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총체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앙에 기반한 포괄적인 섹슈얼리티 교육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명확히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며,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와 친교단체가 순례의 길에서의 대화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목 자료를 개발, 공유, 제공할 때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²⁴⁰⁾

8.4.3 새로운 교회됨의 방식을 향하여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모든 교회의 의제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의

240) Examples of such resources include: the UCCP curriculum on gender and sexuality; the Senate of Serampore College curriculum on human sexuality; "Churches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rom the Latin America Council of Churches;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anzania training; material from the Circle of Concerned African Women Theologians; EHAIA-TEE modules on human sexuality and masculinity and age-specific HIV education from the Russian Orthodox Church.

의제에서 강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일부 교회는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르침과 윤리적 입장을 재고하는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거쳤으며, 영향을 받는 취약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는 다른 교회와 중요한 에큐메니칼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에큐메니칼 관계에서 감정적인 논쟁과 논쟁을 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실제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때로는 고도로 정치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침묵으로 대응했고, 어떤 교회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전쟁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와 교회 가족 간의 깊고 고통스러운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최근 신앙과 직제 문서인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는 교회가 일치와 다양성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순례의 도전은 이러한 다양성과 내적 다원성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와 교회 가족들은 이러한 다양성에 직면하여 평화의 유대 안에서 일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교회와 종교적 회중은 본질적으로 다원적입니다. 인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신학적 입장의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함께 순례하는 여정에서 다양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학적 주장이 상대방의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형성을 외면한 채 진리로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과제는 모든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 윤리적, 도덕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대화의 공간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중단하거나 관계를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서로에 대해 마음을 닫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교회들의 에큐메니칼 교제의 핵심 원칙은 교회들을 분열시키려는 모든 음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²⁴¹⁾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완전성을 향해, 신성을 향해 성장하는 교회의 비전을 통합하고 강조하는 동시에 교회가 그 비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Kyrie eleison)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실패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때때로 교회가 삶과 사랑, 욕망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의인이며 죄인인 현실(*simul justus et peccator*)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더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교회가 진정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창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겸손하고 세상과 겸손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 순례의 초대장에 명시된 것처럼, 교회들은 "정의와 평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협력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소명을 새롭게 하고, 갈등과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의 탐구에 함께 일하도록 서로를 불러왔습니다."²⁴²⁾ 이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기독교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다른 공동체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해 주어진 교제를 항상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제로 하는 영적이고 변화적인 여정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41) "Messag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msterdam, 1948, in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ed. W. A. Visser't Hooft (London: SCM, 1949), 9.

242) *An Invitation to 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revised), WCC Central Committee, 2-8 July 2014, Geneva, Switzerland, <https://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entral-committee/geneva-2014/an-invitation-to-the-pilgrimage-of-justice-and-peace>.